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1364-14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2019 Korea Hanok Competition

국토교통부

진행과정

공모 공고	2019. 3. 25
참가등록 및 작품접수	준공·사진·계획부문 (2019. 8. 5 ~ 8. 8)
심사	준공부문 (1차: 8. 23 / 2차: 9. 17 ~ 9. 25) 사진부문 (8. 23) 계획부문 (1차: 8. 23 / 2차: 9. 22)
시상식	2019. 10. 11
전시회	〈1차〉 2019. 10. 10 ~ 10. 13 경주화백컨벤션센터 〈2차〉 2019. 11. 18 ~ 11. 24 공항철도 공덕역

운영위원/심사위원

운영·심사위원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한필원 교수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정연상 교수
박영채 스튜디오	박영채 대표
한국건축사진가회	윤준환 회장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강우현 소장

기획의도

주최	국토교통부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 새로운 한옥,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

도시의 마을들이 급속히 사라져간다. 한옥 혹은 재래주택들이 양옥이나 일식주택들과 함께 시민들의 공동체적 · 친환경적 삶터이자 도시의 풍경을 이루던 그곳은 지난 세기 말부터 아파트단지로 재개발돼 송두리째 사라져갔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곳의 집들을 밀어낸 다세대주택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커다란 몸집으로 그곳의 고유한 질서를 깨트렸다. 이 모든 개발의 소용돌이를 피해 여전히 남아 있는 도시마을들은 최근 도시재생의 대상지가 됨으로써 기대와 우려 속에 앞날을 기다리고 있다.

도시마을을 되살려 가꾸어나갈 때 그 도시는 비로소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꿀 수 있다. 도시마을 재생에 우선 필요한 일은 새로운 기운의 출발점이자 그것을 선으로 또 면으로 확산시킬 잠재력을 가진 거점을 만드는 것이다. 한옥은 도시마을 고유의 필지패턴과 길체계를 유지하면서 마을공간을 활기찬 삶터로 되살리는 거점을 건축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옥은 우리 도시의 공간조직과 함께 발전해온 건축유형이기 때문이다.

올해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는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도시와 연결시킴으로써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 역할을 할 새로운 한옥 설계안을 널리 구한다. 과거 종가가 마을 건축의 기준이었듯이 도시마을 재생의 기준이 되고 장차 도시마을 건축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가로와 골목, 필지로 구성되는 도시조직을 유지시키는 힘을 가진 한옥, 도시마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힘 있는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새로운 한옥은 한옥에 대한 좋거나 나쁜 기억을 가진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그것이 생소하기만 한 20~30대의 젊은 세대들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이어야 하리라. 그것은 회색 도시에 개성을 입히고 도시풍경을 독특하고 재밌게 만드는 건축일 것이다. 결국 그것은 그 마을을 그 도시답게 만들어 주리라.

차례

진행과정 / 운영 및 심사위원	2
기획의도 / 차례	3
심사위원장 심사평	4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8
올해의 한옥상	14

사진부문

일반인	대상	28
	금상	30
	은상	32
	동상	34
	입선	36
청소년	금상	46
	은상	48
	동상	50
	입선	52

계획부문

대상	58
특별상	62
금상	66
은상	70
동상	78
입선	84

심사위원장 심사평

올해의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주제는 '한옥,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 새로운 한옥,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이었습니다. 도시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그것을 도시와 연결시킴으로써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 역할을 할 새로운 한옥 설계안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과거 종가가 마을 건축의 기준이었듯이 도시마을 재생의 기준이 되고 장차 도시마을 건축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가로와 골목, 필지로 구성되는 도시조직을 유지시키는 힘을 가진 한옥, 도시마을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지속시키는 힘 있는 한옥은 어떤 모습일까, 공급 과잉의 시대, 축소의 시대라 할 이 시대에 건축가들에게 던져진 이런 질문들에 대해 참신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옥설계를 공모했습니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건축의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그리고 사진의 일반인부문과 청소년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건축 계획부문은 주제에 맞추어 새로운 설계안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제 막 한옥 건축의 길에 접어든 학생과 신인들이 주로 응모합니다. 올해는 도시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폭넓고 어려운 주제를 제시했음에도 예년보다 훨씬 많은, 89작품이 접수됐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아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선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준공부문은 지난 5년 동안 지어진 한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건축가는 물론 건축주, 시공자 혹은 책임목수,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어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준공부문에는 마을 단위의 작품과 도시에서 현대 공공건축물과 공존하는 한옥이 출품되어 한옥의 역할이 건물의 범위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옥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한옥 건축의 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은 일이고 바로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부문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양한 시각에서 훌륭하게 포착해낸 사진가들의 능력을 겨루는 장입니다. 한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듯 총 876점이 출품되어 그것을 한 장소에 펼쳐놓고 진행한 심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이벤트였습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1차 심사는 2019년 8월 23일에 건축 계획부문과 준공부문, 사진 부문 등 모든 부문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모두 7분으로, 건축 부문에 정연상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우현 아키후드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이 참여했고, 사진 부문은 박영채 작가와 한국건축사진가회 회장인 윤준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필원 교수는 심사위원장으로 세 부문 심사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건축 계획부문에서는 89개 출품작에 대한 패널 심사를 통하여 18개 작품을 2차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준공 부문에서는 12개 출품작에 대한 패널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2차 현장방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진 부문은 총 876점 중에서 수상 대상작을 선정하는 1차 심사, 선정 작품들을 대상으로 본상 수상 대상을 추려내는 2차 심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의 순위를 결정하는 3차 심사를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총 34점이 수상을 하게 돼 경쟁률이 무려 26대 1에 달했습니다.

건축 계획부문에 대한 2차 심사는 9월 22일에 있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출품자들은 모형과 ppt를 추가로 준비해 발표했고 심사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계획의 의도와 출품자의 한옥건축에 대한 이해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준공부문에 대한 현장방문 평가는 대상 작품이 서울과 대구, 경주에 분포해 9월 17일과 22일, 25일에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설계자의 설명과 함께 사용자나 건축주와 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부문별로 진행된 일련의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수상작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수상 작품에 대한 간략한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준공부문입니다. 올해의 한옥 대상으로 선정된 [월문가]는 박상욱 건축가의 작품으로, 은평한옥마을의 작은 대지에 현대생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했으며, 차경 기법 등으로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디자인을 해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목재 품질 및 구조에 대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돋보였습니다. 건축주, 곧 거주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새로운 한옥에 대한 만족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올해의 한옥상은 두 작품을 선정했는데, 최근 준공한 이화여대병원 앞에 자리한 [보구녀관]과 은평한옥마을에 지어진 [청인당]입니다. [보구녀관]은 강성원 건축가의 작품으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근대한옥을 새로운 맥락과 용도에 대한 해석을 통해 복원한 한옥입니다. 현대 공공건축물 앞에서 새로운 도시공간의 조직에 적응한 한옥을 통해 한옥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인당]은 전재영 건축가의 작품으로, 뛰어난 한옥의 공간감을 구현한 점과 북한산 등 주변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부문에서는 [서울재동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안]을 대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양은빈 학생의 작품으로, 한옥에 적합한 공간구성, 스케일 및 레벨 조정 등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매우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마루:심기]는 중앙대학교 양우제 등 4명의 학생이 제출한 작품으로, 마루를 여러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기존 도시공간에 적극적으로 적용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흔적 위에 더해 쓰기]는 중앙대학교 장광민 등 4명의 학생 작품으로, 현대한옥의 과제 가운데 하나인 상층의 마당을 제안하는 등 커뮤니티공간을 위한 논리적 접근과 제안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은상은 중앙대학교 송형창 등 네 명의 학생이 출품한 [마담 용두(MADAM YONGDU)]와 동양미래대학교 이수연 등 세 명의 학생이 출품한 [꼭간에서 共간으로]를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모두 기존의 도시한옥 마을을 재생하는 재밌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작품들입니다. 동상은 동양미래대학교 공도영 등 네 학생의 [청향만리(淸香滿里)_청춘의 향기가 퍼지는 청향마을], 원광대학교 박현창 등 네 학생의 [물들이다 ; 우리의 색이 퍼져 스며들다], 그리고 동양미래대학교 한용희 등 네 학생의 [서순라2019]가 공동 수상하게 됐습니다. 한옥으로 도시를 살리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시한 작품들입니다.

사진 부문은 올해도 대상이 일반부에서 나왔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옛 추억]은 일반인 양광현 님의 작품으로, 정읍의 김명관고택, 과거에 김동수가옥이라 불렸던 한옥에서 촬영한 작품인데, 안마당의 공간감과 기와, 기둥, 판문과 띠살문, 디딘 등에서 느껴지는 재료의 물성을 적절한 빛 조건과 시각에서 촬영한 뛰어난 작품입니다.

일반인부문 금상작으로는 역시 김명관고택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고택의 아름다움]을 선정했습니다. 문간을 통해 보이는 한옥 공간의 구성과 깊이를 포착한 작품입니다. 선명한 자연색의 문짝, 그 목질감과 무늬가 공간감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기는 작품입니다. 은상은 이도은 님의 [비내리는 석파정]과 김성욱 님이 강릉 선교장을 촬영한 [경계를 넘어], 동상은 서형관 님이 하동 최참판댁을 촬영한 [한옥의 눈]과 김종수 님이 서산 개심사를 촬영한 [가을 속의 한옥]에 돌아갔습니다. 이밖에도 15점의 입선작을 선정했습니다.

청소년부문에서는 박은기 님의 [운조루의 가을]을 금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운조루의 안대청에서 한쪽에 장독들이 놓인 안마당을 거쳐 행랑채 너머 먼 산과 하늘이 바라보이는, 자연과 하나 되는 한옥 공간의 확장성을 명랑한 빛 조건에서 담아낸 작품입니다.

청소년부 은상은 조우찬 님의 [홍의재의 꼬불기둥]과 김채연 님의 [나무 한그루]가 공동 수상하게 됐습니다. 앞의 것은 고창 용오정사의 꼬불꼬불한 기둥들이 받치고 있는 한옥의 툇간과 처마를 재밌게 보여주는 작품이고, 뒤의 작품은 창덕궁의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를 공간의 켜를 통해 인지되는 조용한 오브제로 해석한 작품입니다. 동상은 이도연 님의 [키다리 한옥]과 유수정 님의 [중정에서 본 하늘]에 돌아갔습니다. 앞의 작품은 높은 시원한 한옥을, 뒤의 작품은 좁고 낮은 따스한 한옥을 사진으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밖에도 8점의 작품을 입선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은 수많은 작품들을 심사하면서, 특히 학생들의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하고 또 젊은 건축가들이 실현한 다양한 한옥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한옥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수한 사진 작품들을 보면서 한옥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출품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분들의 노력이 더해져 앞으로 한옥 건축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에 도움을 주신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 10월

심사위원장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준공부문



마당 및 다실 활용 VIEW



위치도

- 한옥단지형 마을에 위치
- 비슷한 규모의 단독한옥용 대지 밀집
- 북한산 조망권



주변현황 및 배지

- 발 딛는 마당 중심의 공간구성
- 일조를 고려한 남동향 배치
- 주거 내부의 소통 및 마을길과의 교류 추구



골목과의 교류 (다실)골목 VIEW)



마당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집,

월문가 月門家

현대한옥, 도시형한옥

은평한옥마을은 이 시대의 현대한옥들이 들어서며 조성되고 있는 신생 한옥마을이다. 월문가의 대지는 이 단지형 마을에 크지 않은 규모로 북한산을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건축주와의 계획과정에서 공간구성은 대지 규모에 제약을 받는 도심지 한옥의 특성을 띠게 되었고, 생활 편의성의 충족은 전통성의 바탕 위에 현대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채 구성 및 공간의 집약과 확장

월문가에는 전통적인 사대부가의 채 구성방식을 집약하여 적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사랑채, 안채, 별당의 공간과 기능 그리고 상징성을 함축하여 작은 한 채의 한옥에 녹여 넣었다. 필요한 요구면적 대비 부족한 수평적 면적은 집약시키고, 반대로 그로 인한 압력은 지상 및 지하의 수직방향으로 확장하여 해결함으로써 땅의 규모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였다.

공간의 분절과 연계

대문 옆 다실 루는 사랑채의 상징이며, 대외적 교류 또는 마을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한쪽으로 비켜 설치한 2층 서재는 별당의 상징이며, 휴식공간이자 북한산 조망공간이기도 하다. 독립생활을 원하는 따님의 공간은 현대식 지하공간으로 썬큰을 2개소 적용하여 햇볕과 공기가 통하는 지하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공간은 마당과 소통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있다.

한옥 고유의 요소 계승

한옥의 중심공간인 마당, 한식 목구조의 법식, 한옥만의 장식요소 등 전통한옥에서 빠질 수 없는 항구적 요소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멋을 지닌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도 각 요소별 기본에 충실하고 디테일하게 적용하고자 많은 정성을 쏟았다.

월문가의 소통과 표정

월문가는 현대적 편의성과 신기술이 적용된 21세기의 도시형한옥으로 지어지면서 전통적 마당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이 이어지는 소통성을 갖도록 계획되었다. 주거 내의 이런 적극적 소통은 사랑 루를 통해 마을 골목길과도 연계시키고자 하였다. 도시마을의 골목에 조심히 소통을 노크하는 것이 마을에 대한 월문가의 표정이다. 그것은 마을과 소통하고자 하는 다정한 마음이자 아기자기함이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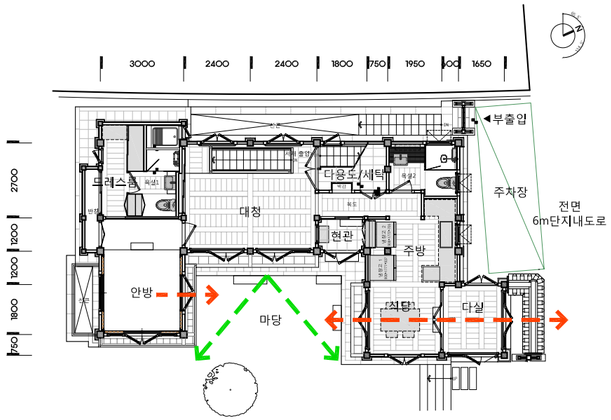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자향헌 박상욱

건축주 임희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지역지구	1종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204.7㎡
용도	단독주택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75.89㎡
연면적	169.92㎡
지상층면적	99.68㎡
건폐율	37.07%
용적률	48.69%
구조	한식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대

배치도 + 1층 평면도

- 1층은 마당을 중심으로 햇빛을 받도록 펼쳐졌다.
- 모든 공간의 중심은 마당이고, 상호 소통하고 교류한다.
- 전통적 채 구성에서의 사랑채와 안채가 조합되어, 내외부와 연계된다.



▷ 안방 VIEW



▷ 주방, 식당 VIEW



▷ 마당 VIEW



▷ 마당 VIEW



▷ 대청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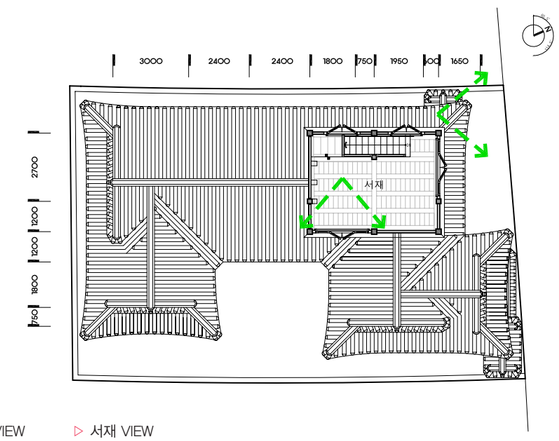
▷ 다실 〉 식당 〉 마당 VIEW





2층 평면도

- 2층은 전통적 채 구성에서의 별당에 해당하며, 휴식과 전망의 기능을 갖는다.
- 대청을 비껴 위치시킴으로서 1층 대청이 연등천장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 1층 지붕구조를 2층 내부에 노출하여 구조미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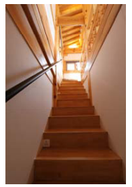
▷ 서재 〉 북한산 VIEW



▷ 서재 〉 연등천장 VIEW



▷ 계단 VIEW



▷ 서재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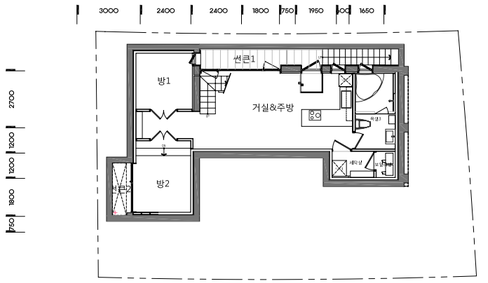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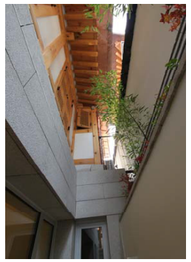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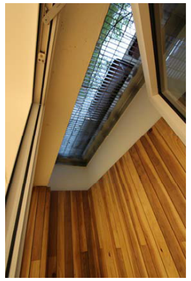
- 독립생활을 원하는 딸의 현대식 생활공간
- 생활공간에 햇빛과 바람을 제공하는 선큰 2개소 설치
- 주택 내부 동선 외 별도의 외부출입동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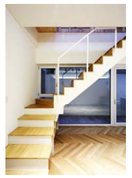
▷ 선큰1 VIEW



▷ 선큰2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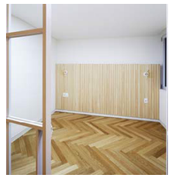


▷ 거실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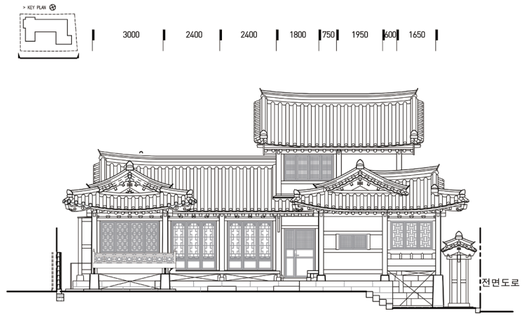


▷ 방1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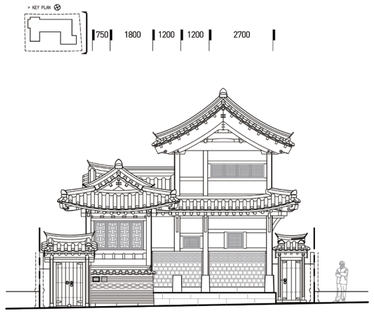


▷ 방2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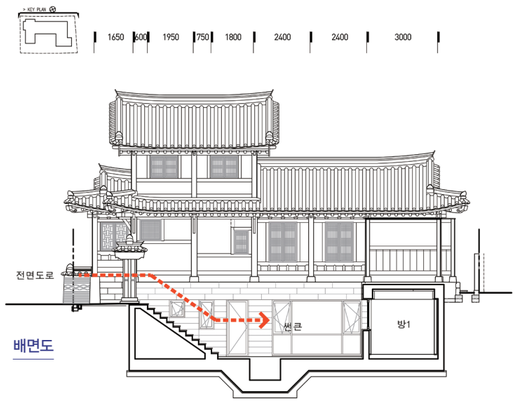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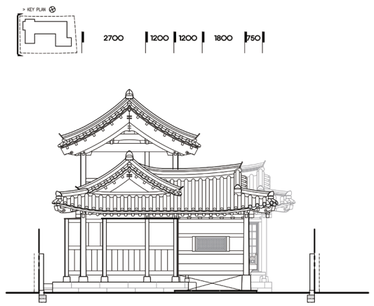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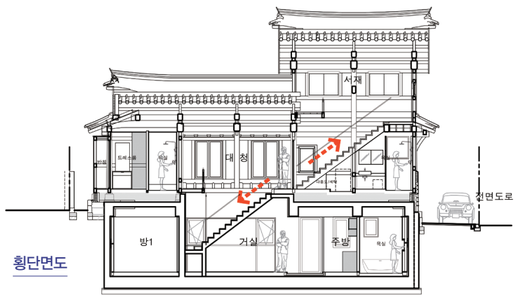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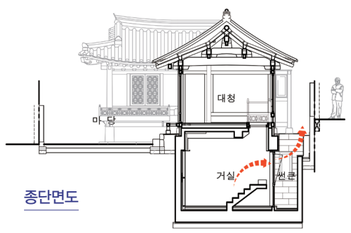
좌측면도





횡단면도





종단면도

요소별 전통성 계승

▷ 안방



전통 창호 구현 및 단열을 위한 덧창설치

▷ 기둥 쇠시리



기둥 크기별 쇠시리 구분 적용
(240각 쌍사, 210각 외사)

▷ 2층 구조부 노출



1층 대청 지붕 목구조부를 2층 실내에
노출시켜 구조미 강조

▷ 막새기와



중요 공간에만 적용한 포인트 막새기와

▷ 의장성 강조한 덧박공



판두께 차이로 의장성을 강조한 2층 덧박공

▷ 대청 연등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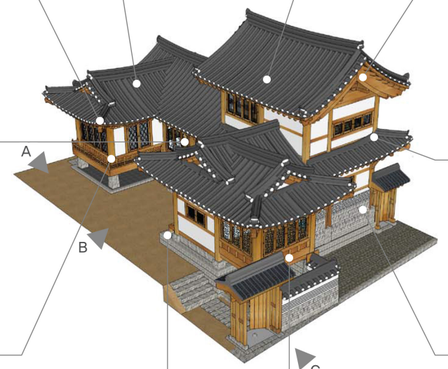


전통적 연등천장을 살리면서 2층 한옥 구현

▷ 층간지붕 구조



층간지붕을 받치는 목구조의 의장성



▷ 민흘림 기둥



큰 기둥(240각)에 민흘림기법 적용

▷ 화방벽



담장을 대신한 길가의 화방벽

▷ 기단 모서리석



전통적 기단 모서리석 적용

▷ 머름



전통적 머름형식 적용

▷ 'A' VIEW



▷ 'B' VIEW



▷ 'C'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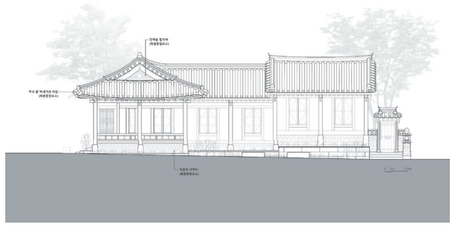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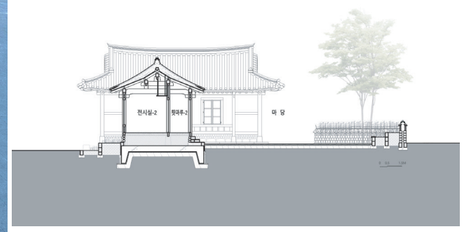
보구녀관 전경과 서울이대병원 의과대학

보구녀관 普救女館, 새병원의 풍경에 역사를 더하다

보구녀관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뜻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일 뿐만 아니라, 이화학당과 더불어 근대적인 여성 교육을 이끌어 나간 여성의학 교육기관의 효시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의학 교육과 의료 활동은 이를 계승하였다.
서울 마곡에 새롭게 조성되는 이화의료원의 새병원 및 의과대학 내 상징경관구역에 보구녀관을 복원함으로써 한국 근대 여성의료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현대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풍경 속에 한옥 특유의 따뜻함을 품고 들어서 새병원에 온기를 전하며 여성의료 전반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전할 것이다.



보구녀관 남측면도



보구녀관 단면도

보구녀관, 풍경에 역사를 더하다

1890년, 역사 속 '복원한옥'

보구녀관은 남아있는 사진 및 문헌들을 바탕으로 복원 설계된 한옥이다.
복원시점은 여의사 로제타홀이 진료를 보기 시작한 1890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통한옥에 유리를 끼운 개량된 창호를 사용하고 그 내부에는 흰색 커튼을 설치하는 등 병원에 맞춰 부분적으로 개조된 한옥으로, 몸채와 날개채는 서대문 정동지역 지형의 영향을 받아 높이 차이가 존재한다.
복원 대상지의 위치는 정동에서 마곡으로 변하였으나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보구녀관의 시대적 가치, 건축특성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통해 복원설계를 선행하였다.

2019년, 현대적 '신한옥'

보구녀관은 전통한옥의 구축술에 바탕을 두는 복원 개념의 한옥이자, 현대인이 요구하는 기능과 감성을 수용하는 21세기형 신한옥이다. 복원 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현대적 공간과 해석을 첨가하였다. 가까이로는 환자와 보호자의 힐링 공간이자 넓게는 도시마을의 주민들과 연결된 열린 한옥이다. 앞선 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옥으로, 성장하는 세대에게는 기억에 남는 한옥으로 이제 이곳에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를 위한 공간

보구녀관은 병원과 의과대학의 접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시 개방된 헤리티지 가든과 연접하여 도시마을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도 손 쉽다. 안뜰은 담장을 낮추고 일부구간을 열어 쉽게 접근 가능한 개방된 휴게공간이며, 마당은 화계 및 한식 담장이 어우러진 전통적 공간을 연출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연구시설에 속한 전시시설로 모두가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여 높이차를 해소했다. 리프트는 마당에 설치하여 날개채로 진입할 수 있으며, 복도폭도 이동에 무리가 없는 너비를 확보했다. 작은 배려로 보구녀관이 환자 및 노약자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보구녀관普救女館, 새 병원의 풍경에 역사를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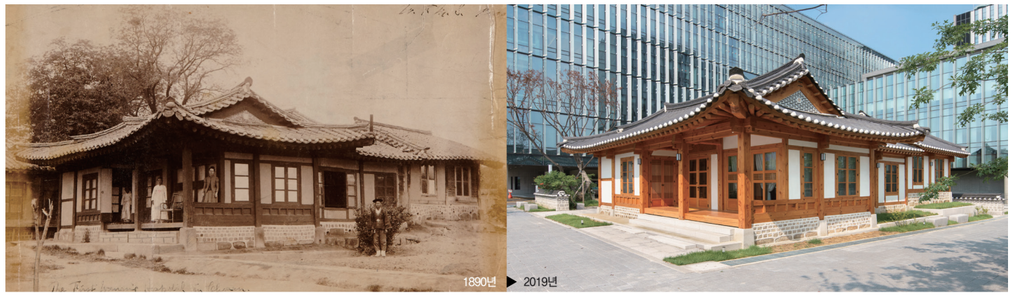
보구녀관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뜻을 지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일 뿐만 아니라, 이화학당과 더불어 근대적인 여성 교육을 이끌어 나간 여성의학 교육기관의 효시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의학 교육과 의료 활동은 이를 계승하였다.
서울 마곡에 새롭게 조성되는 이화의료원의 새 병원 및 의과대학 내 상징경관 구역에 보구녀관을 복원함으로써 한국 근대 여성의료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현대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풍경 속에 한옥 특유의 따뜻함을 품고 들어서 새 병원에 온기를 전하며 여성의료 전반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전할 것이다.

준공부문 올해의 한옥상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강희재 강성원, 류종미
건축주	학교법인 이화학당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용도	대학교
대지면적	9,917㎡
건축면적	3,538.34㎡
건폐율	35.68%
조경면적	2,040.56㎡
연면적	42,542.82㎡
구조	철근콘크리트

1890년, 역사 속 '복원한옥'

보구녀관은 남아있는 사진 및 문헌들을 바탕으로 복원설계된 한옥이다. 복원시점은 여의사 로제타홀이 진료를 보기 시작한 1890년을 기준으로 한다. 전통한옥에 유리를 끼운 개량된 창호를 사용하고 그 내부에는 흰색 커튼을 설치하는 등 병원에 맞춰 부분적으로 개조된 한옥으로, 몸채와 날개채는 서대문 정동지역 지형의 영향을 받아 높이 차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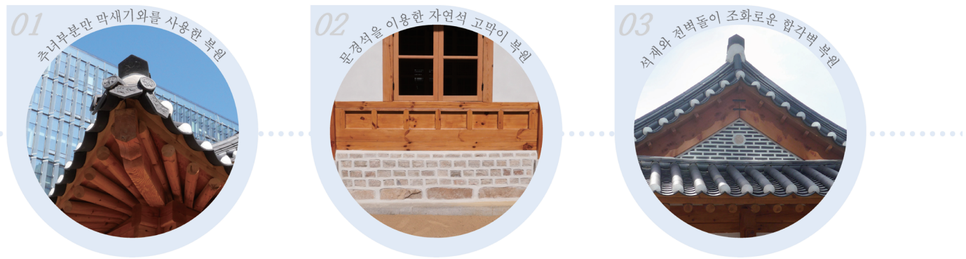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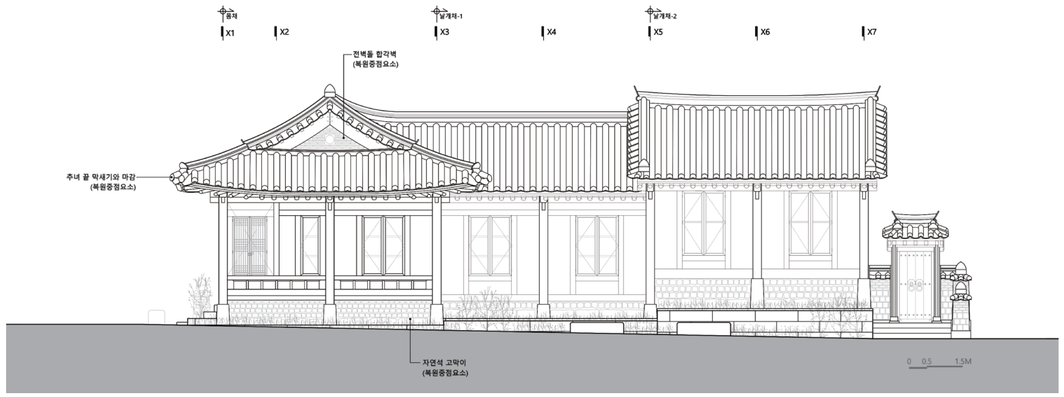
사료를 통한 실내공간 분석 : 대기실, 진료실, 약제실, 창고, 세탁장, 수술실이 있었다.

I am still more pleased and delightfully surprised with the hospital and dispensary. There is a well stocked drug room, with storeroom and room for washing and cleaning up ; a nice waiting room, and a consulting room between it and the drug room. Then there is a fine large front room which has only the library in it now. It is well lighted and will make a good operating room if I want it. There are two other nice rooms off from this. Then outside there are three rooms that may be used for inpatients.

로제타 홀, 『로제타홀의 일기 2』, 2016

사료를 통한 외부 고증 : 전체적 모습뿐만 아니라 추녀막새기와, 자연석기단석, 전벽돌 합각벽 등 작은 부분까지도 원형그대로 복원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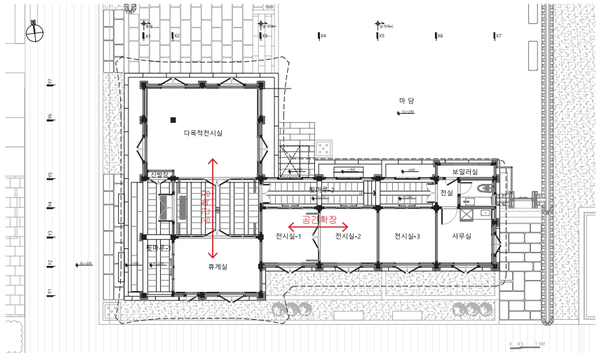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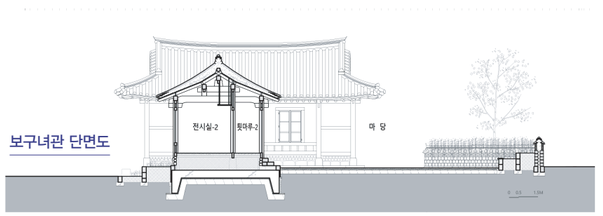
보구녀관
남측면도

2019년, 현대적 '신한옥'

보구녀관은 전통한옥의 구축술에 바탕을 두는 복원 개념의 한옥이자, 현대인이 요구하는 기능과 감성을 수용하는 21세기형 신한옥이다.
복원 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현대적 공간과 해석을 첨가하였다. 가까이로는 환자와 보호자의 힐링공간이자 넓게는 도시마을의 주민들과 연결된 열린 한옥이다. 앞선 세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한옥으로, 성장하는 세대에게는 기억에 남는 한옥으로 이제 이곳에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다양한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구녀관 평면도



보구녀관 단면도

1. 외기의 영향 최소화

• 날개채 툇마루의 내부공간화 : 날개채 툇마루에 창호를 설치하여 연속된 실내로 활용
• 창호의 단계별 적용 : 외기와 면하는 창호 중 문은 한식시스템창호, 창은 복층유리 이중목재창호, 내부문은 전통한식창호를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외기를 차단하여 단열 및 방범 성능을 높임

2. 공간의 확장

• 전시공간의 가변성 : 다목적전시실 -홀- 휴게실 사이는 6짝접이문을 두어 전시와 강연의 규모에 대응하여 공간의 크기를 선택적으로 사용
• 가퇴를 두어 다용도실 확보 : 전시용도이지만 보일러를 사용하는 현대식 바닥난방으로 계획.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날개채 끝의 마당 방면으로 가퇴를 두어 창고의 기능을 겸한 다용도실을 둠

3. 현대생활상 반영

• 신발장 :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의 신발 분실과 강수 노출을 방지하여 관람 편의성을 높이고자 주출입구에 신발장을 계획. 한옥과의 일체화를 위해 별도의 가구로 계획하는 대신 툇마루의 고증된 창호를 활용하여 외형은 유지함

▷ 다목적전시실–홀–휴게실 확장



모두를 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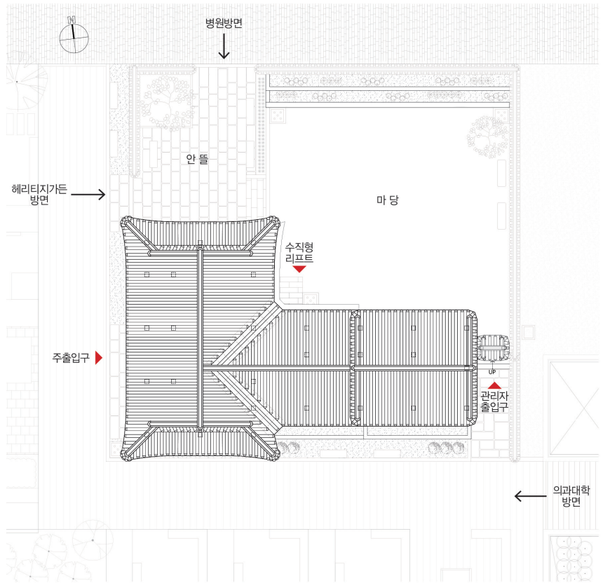
보구녀관은 병원과 의과대학의 접점에 위치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시 개방된 헤리티지 가든과 연접하여 도시마을의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도 손쉽다.
안뜰은 담장을 낮추고 일부구간을 열어 쉽게 접근 가능한 개방된 휴게공간이며, 마당은 화계 및 한식 담장이 어우러진 전통적 공간을 연출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연구시설에 속한 전시시설로 모두가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형리프트를 설치하여 높이차를 해소했다. 리프트는 마당에 설치하여 날개채로 진입할 수 있으며, 복도폭도 이동에 무리가 없는 너비를 확보했다. 작은 배려로 보구녀관이 환자 및 노약자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

▷ 휠체어 사용자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수직형리프트 설치



▷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복도폭 확보





보구녀관 배치도

▷ 병원에서 진입하는 안뜰 전경



보구녀관의 회복을 위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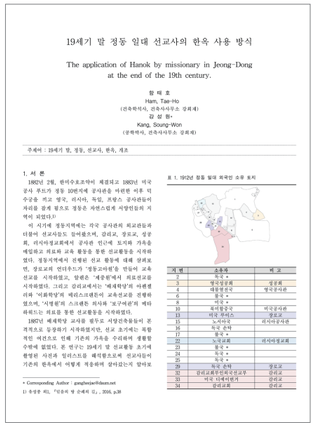
아카이브1. 고증 및 복원연구

이화학당 설립자 메리 스크랜튼 여사는 여성 의료사업을 위해 여의사 파견을 요청하였고 1887년 여의사 메타하워드가 파견되어 서울 정동에서 보구녀관이 시작되었다. 복원 대상지의 위치는 정동에서 마곡으로 변하였으나 다양한 고증자료를 수집하고 보구녀관의 시대적 가치, 건축특성 등을 분석하여 자문을 통해 복원설계를 선행하였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카이브2. 근대 한옥 연구

1880년대는 고종이 여러 외국국가와 조약을 맺기 시작하던 시기로, 이를통해 정동지역에는 각국의 공사관과 더불어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며 선교를 위한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고 의료와 교육 활동을 통한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보구녀관 역시 이 시기에 시작된 의료 선교활동의 일환이다.
당시 서양인들은 한옥을 개조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했기 때문에 정동지역 한옥의 특성을 폭넓게 조사연구하여 보구녀관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19세기 말 정동 일대 선교사의 한옥 사용 방식

The application of Hanok by missionary in Jeong-Dong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심포지엄. 이화의학의 과거-현재-미래

보구녀관의 정신은 현재 이화의료원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 만큼 보구녀관 건립 130주년을 맞아 복원 사업을 시작하고 이화의료원의 새병원 및 의과대학 건립에 맞추어 그 부지에 보구여관을 복원함과 동시에 1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보구녀관의 역사부터 한국사회와 여성건강, 이화의학의 사회적 기여 등 이화의료원이 현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논한 자리로, 복원한옥으로서 보구녀관이 지속적으로 지니게될 상징성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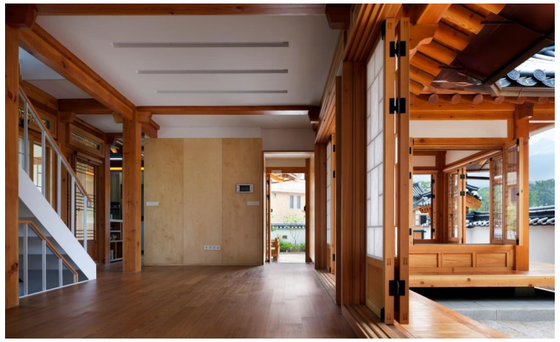


청인당(靑寅堂)

청인당(靑寅堂)은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전형으로 제안한 2층 한옥이다.
한옥 고유의 구법과 비례, 공간적 특징을 존중하면서 이 시대의 보편 타당한 집으로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기존 한옥의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 가치에 시대적 요구사항과 기술을 보완하여 보편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는 도시형 한옥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 정면 모습



▷ 1층 거실

청인당
靑寅堂

청인당은 은평한옥마을 3블럭의 북쪽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2개의 필지를 합필하여 동남쪽으로 넓은 마당을 두었다. 주요 실들을 남향에 두고 동쪽의 북한산을 바라보는 좌향을 기본으로 배치를 하였다.

거실(대청)을 중심으로 침실, 누마루, 거실, 식당이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북측으로 화장실, 주방 등이 배치되어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최적화하는 평면 시스템을 계획하였다. 북측으로 1.2M의 퇴칸을 두어 주요 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수직동선을 계획하였고, 또한 2층 일부를 오픈하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여 1층에서도 한옥의 목가구조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외부공간은 남동쪽의 넓은 마당과 함께, 각 실들 사이로 각각의 의미 있는 마당들을 두어 매스를 적절히 분절함과 동시에 집의 곳곳으로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지상층은 별도의 인테리어 요소 없이 구조재와 수장재의 조합을 통해 자연스러운 한옥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으며, 지하층은 한옥과는 차별화 된 모던한 분위기로 층별로 서로 다른 공간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하층에서 한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다목적실과 부족한 수납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선큰을 통해 채광 및 환기를 확보하였다.

복층한옥이라는 생경한 풍경임에도 기존 전통한옥이 가지고 있는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과 목가구조의 구법적 특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복층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방, 화장실 등 설비의 기능적 문제가 해결되는 요즘 대지 면적이 한정적인 도시적 상황에서 복층을 통한 밀도의 증가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청인당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한옥집단주거지에서 도심형 한옥의 가능성을 발견한 작업이다. 기존 한옥의 단순한 재현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 가치에 시대적 요구사항과 기술을 보완하여 보편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는 도시형 한옥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설계자 모노그래프 건축사사무소
전재영

건축주 박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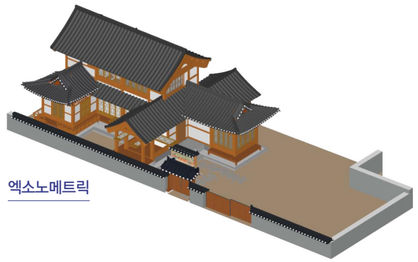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대지면적	418.5㎡
건축면적	94.14㎡
건폐율	22.5% (50% 이하)
지상층 연면적	130.42㎡
용적율	31.16% (100% 이하)
총 연면적	218.2㎡
층 수	지상 2층, 지하 1층
높 이	9.2m
용 도	단독주택(1가구)
주차대수	2대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전형

청인당은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전형으로 제안한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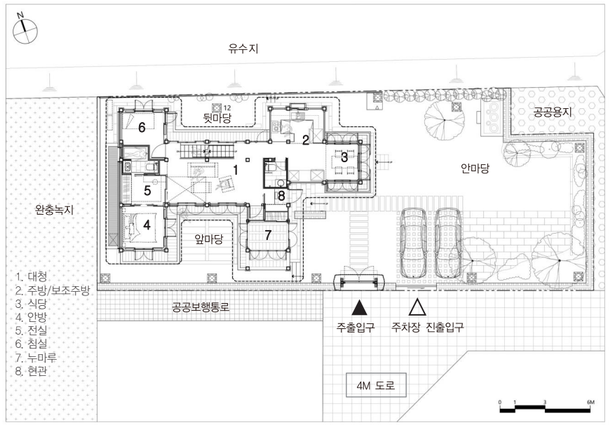
직사각형의 블록형 필지에서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 각 실들이 고유의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거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평면시스템을 제안하였다.

2층으로 계획된 청인당은 적정 밀도 이상을 확보하여, 한옥 이전에 도시건축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공용공간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집적하고 명확히 분리하여 전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간의 융통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지하층을 적극 개발하여 부족한 수납공간 및 홈 시어터, 취미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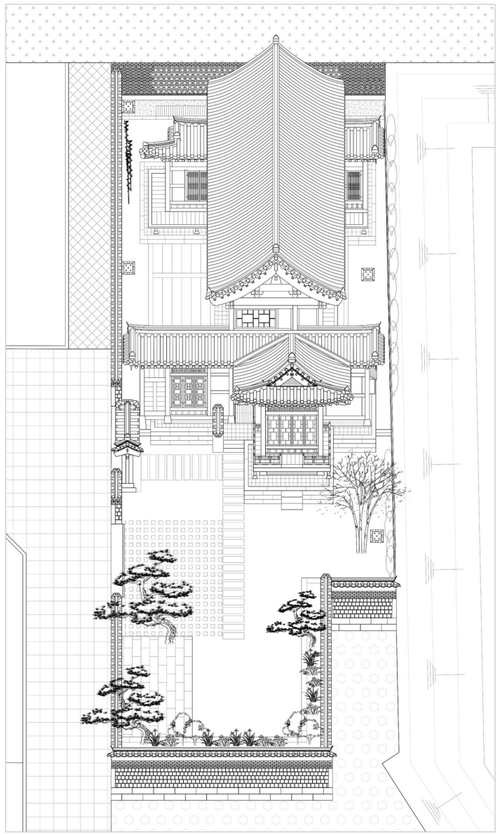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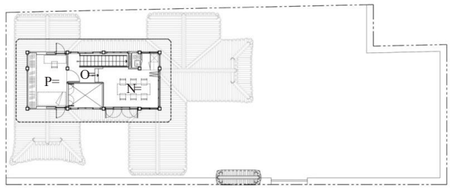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오블리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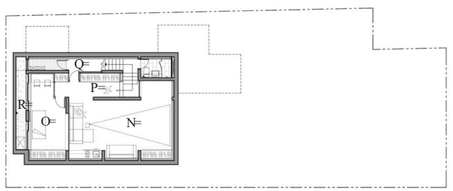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서재
2. 침실
3. 복도

0 1 3 6M

지하층 평면도



1. 다목적실
2. 침실
3. 복도
4. 보일러실 및 창고
5. 선큰

0 1 3 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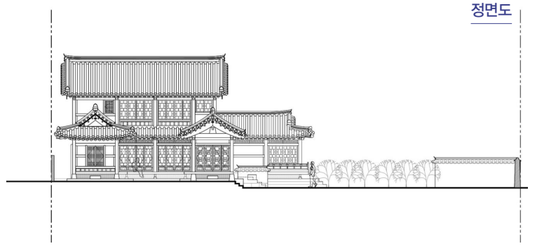
복층한옥의 가능성과 도전

도시형 한옥이 생명력을 가지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의 밀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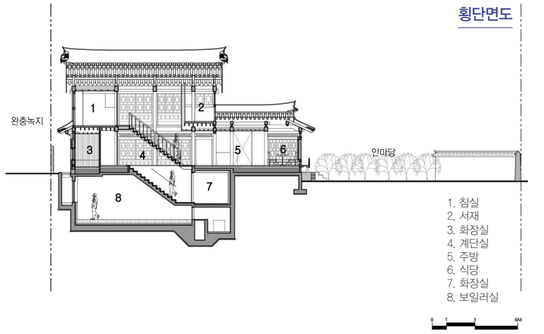
한정된 대지 크기와 높은 지가를 감안하면 기존의 1층 한옥만으로 오늘날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 구조적 안정성과 난방, 단열, 설비, 방수 등 기능적인 요구가 충분히 해결되는 요즘 복층한옥에 대한 건축적, 공간적 가능성은 충분하다.

청인당은 1층 면적의 50% 정도를 2층 면적으로 계획하여, 한옥 고유의 비례와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시대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건축이자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풍경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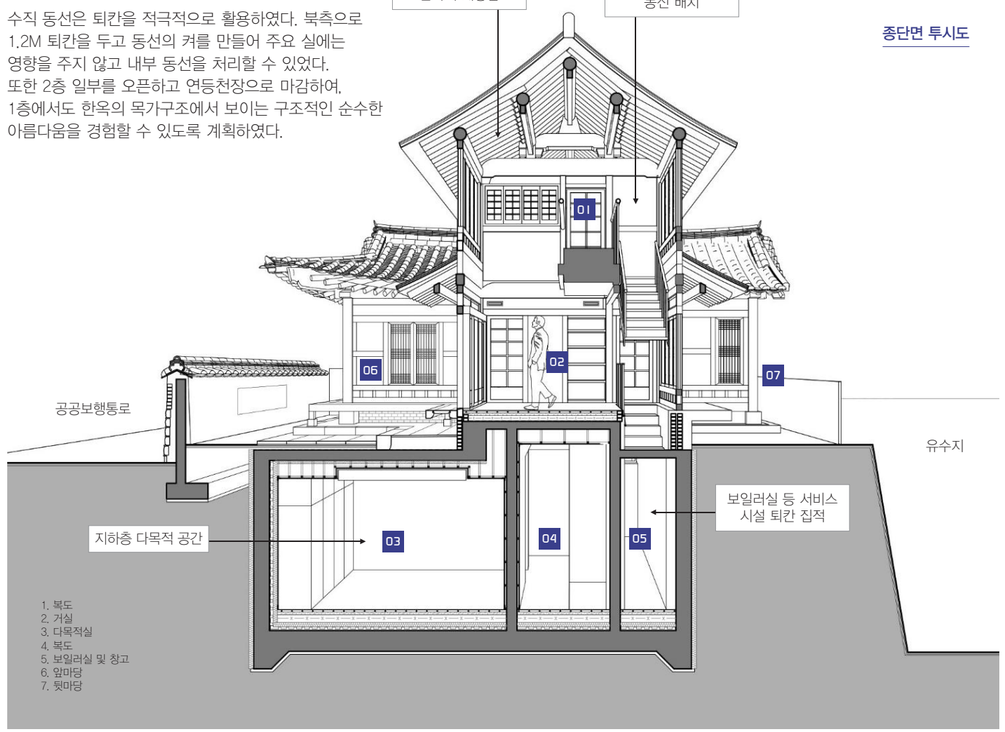


횡단면도



수직 동선은 퇴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북측으로 1.2M 퇴칸을 두고 동선의 켜를 만들어 주요 실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내부 동선을 처리할 수 있었다.
또한 2층 일부를 오픈하고 연등천장으로 마감하여, 1층에서도 한옥의 목가구조에서 보이는 구조적인 순수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종단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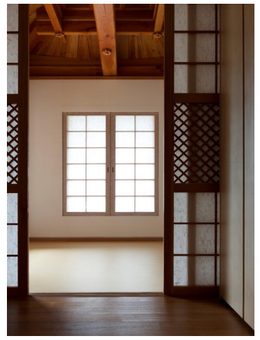
▷ 2층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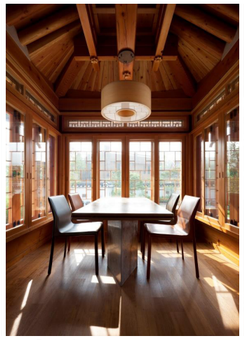
▷ 1층 안방과 앞마당



▷ 2층 서재



▷ 1층 안방



▷ 1층 식당



▷ 1층 앞마당



진화된 텍토닉 : 한옥의 현대화를 위한 성능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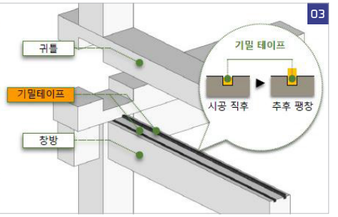


▷ [문선+상하인방+머름] 사전 조립
기둥과 기둥 사이의 [문선+상하인방+머름]은 사전제작 및 조립을 통해 시공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기를 단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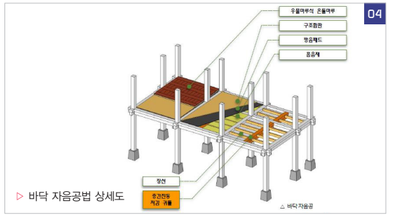


▷ 1,2층 연결부분 고주 시공
2층 한옥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기둥은 고주(高柱)를 활용하여 복층 한옥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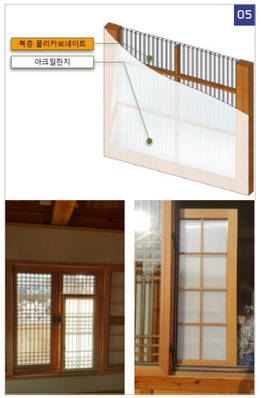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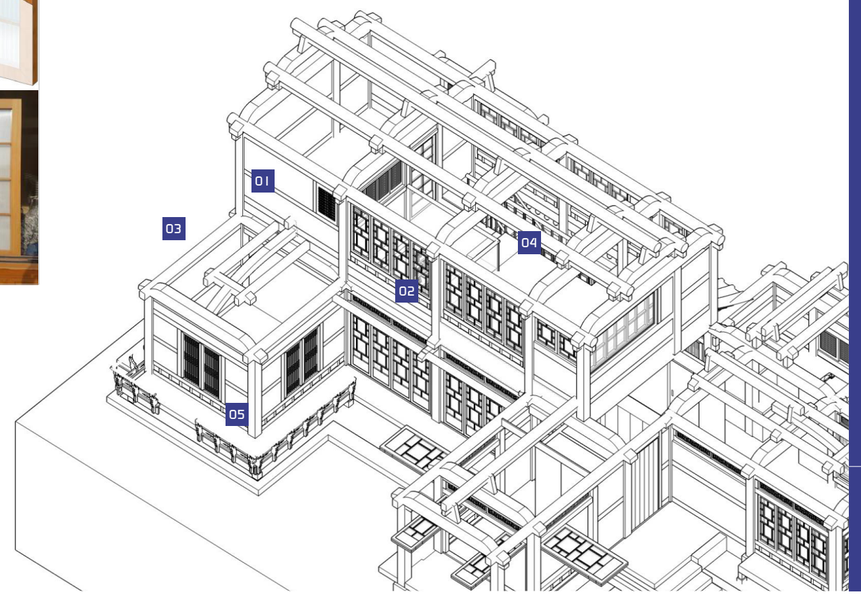
▷ 목재 – 목재 간 기밀형 팽창 테이프 시공
기둥을 파내어 수장재를 끼워 넣고, 그 사이는 팽창형 기밀테이프로 마감하였다. 목재가 수축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틈을 팽창형 기밀테이프를 통해 최소화하였는데, 이는 곧 단열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졌다.



▷ 2층 바닥 상세도
2층 바닥은 난방 및 단열, 층간 소음 등 해결하기 위한 흡음재, 완충 패드 및 PE필름 등을 시공하여 거주성을 제고하였다.



▷ 불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활용한 내창
침실의 내창은 창호 올거미 틀에 10mm 폴리카보네이트를 끼워 넣고, 내부에서는 창호지로 마감을 하였다.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해 복층 유리에 상응하는 단열성능이 확보됨과 동시에 채광이 가능해져 한옥에서 유리 다음으로 현대적인 재료가 적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사진부문

– 일반인



대 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옛추억

수상자 양광현
촬영장소 김명관 고택

금 상



고택의 아름다움

수상자 유지훈
촬영장소 김명관 고택

은 상



비내리는 석파정

수상자 이도은
촬영장소 석파정



경계를 넘어

수상자 김성욱
촬영장소 강릉선교장

동 상



한옥의 눈(目)

수상자 서형관
촬영장소 하동 최참판댁



가을 속의 한옥

수상자 김종수
촬영장소 서산 개심사



앞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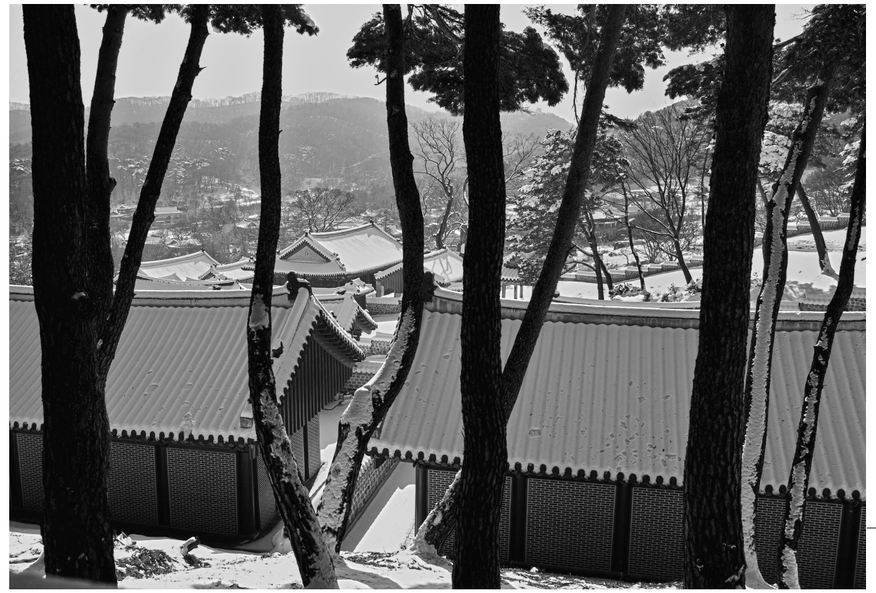
수상자 황인석
촬영장소 창덕궁



무제

수상자 황영승
촬영장소 송광사

입 선



산성의 겨울

수상자 손윤민
촬영장소 남한산성

과거, 현재, 미래

수상자 임채혁
촬영장소 경복궁

입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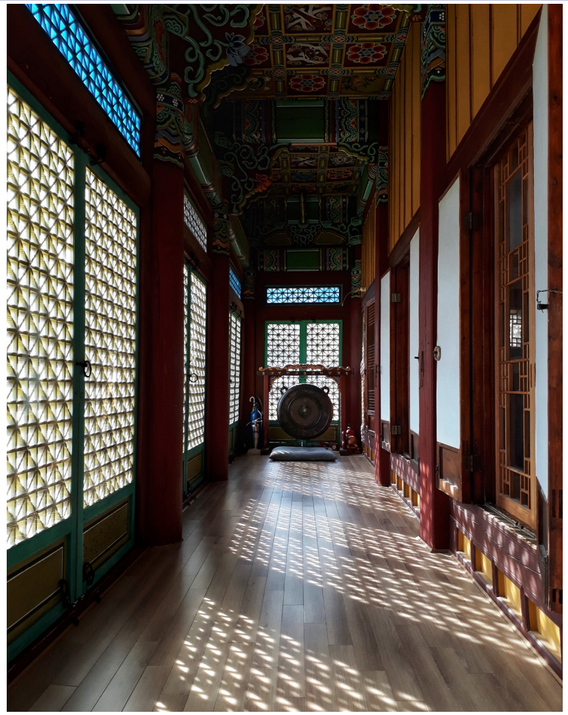
고요한 아침

수상자 이창준
촬영장소 마곡사



열린사랑채

수상자 신승희
촬영장소 하동 최참판댁



문수전의 오후

수상자 송은식
촬영장소 평창 상원사



가을빛 완재정

수상자 남기옥
촬영장소 밀양 위양지



상제루의 비늘 성벽

수상자 황성봉
촬영장소 덕유산 상제루



대흥동헌의 봄

수상자 김미선
촬영장소 외암민속마을

입 선



한옥 속 터널

수상자 윤하늘
촬영장소 경복궁



체화정의 안방에서

수상자 남기성
촬영장소 안동 체화정

입 선



겨울의 한옥마을

수상자 김정국
촬영장소 전주한옥마을



예가 있는 공간

수상자 한정엽
촬영장소 논산 돈암서원

아름다운 고택

수상자 조훈도
촬영장소 김명관 고택



사진부문

– 청소년

금 상



운조루의 가을

수상자 박은기
촬영장소 구례 운조루 고택

은 상



나무한그루

수상자 김채연
촬영장소 창덕궁



홍의재의 꼬불기둥

수상자 조우찬
촬영장소 고창 용오정사

동 상



키다리한옥

수상자 이도연
촬영장소 경복궁



중정에서 본 하늘

수상자 유수정
촬영장소 고희동 가옥

입 선



아침의 나라

수상자 김정원
촬영장소 밀양 위양지



계속 생각날거야 김부각

수상자 안채현
촬영장소 청운문학도서관



入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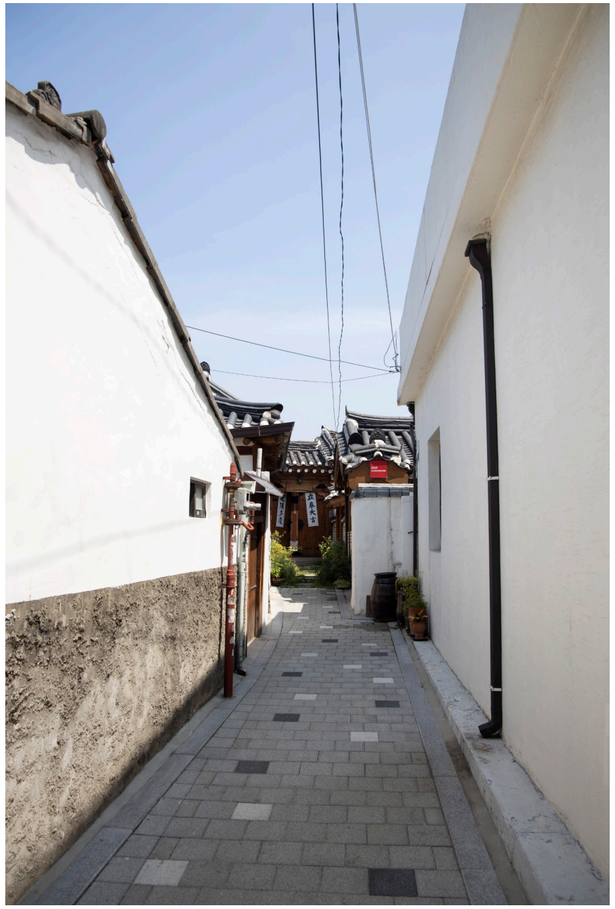
수상자 최시원
촬영장소 김해한옥체험관



조화를 이뤄

수상자 김진영
촬영장소 전주한옥마을

입 선



골목 끝에서

수상자 공유신
촬영장소 서촌마을



월정사

수상자 최민경
촬영장소 월정사

하늘아래 한옥

수상자 윤창훈
촬영장소 경복궁 근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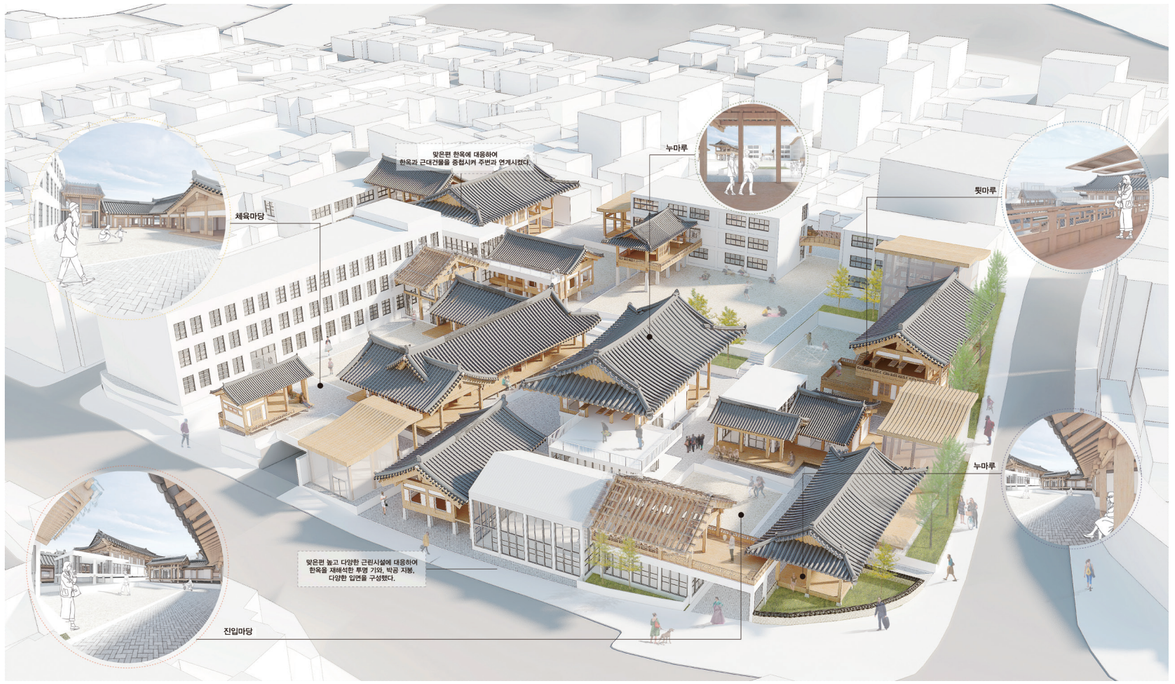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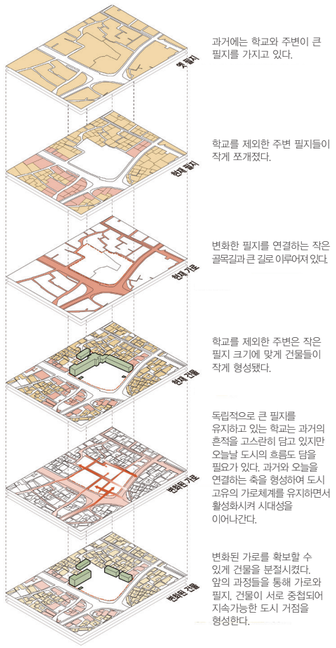
하목정의 풍경

수상자 김중권
촬영장소 하목정

계획부문



가로, 필지, 건물



과거에는 학교와 주변이 큰 필지를 가지고 있다.

학교를 제외한 주변 필지들이 작게 쪼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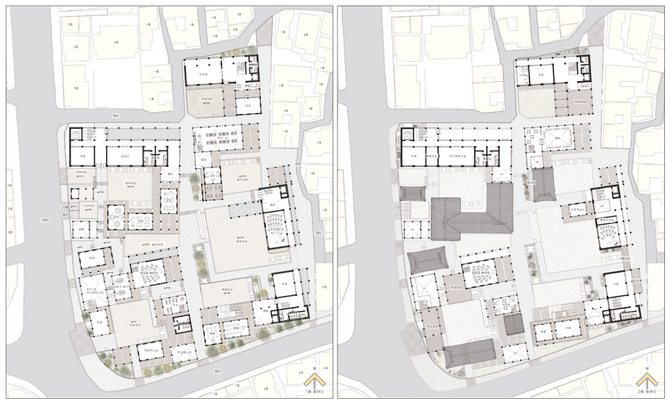
변화한 필지를 연결하는 작은 골목길과 큰 길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를 제외한 주변은 작은 필지 크기에 맞게 건물들이 작게 형성됐다.

독립적으로 큰 필지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오늘날 도시의 흐름도 담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는 축을 형성하여 도시 고유의 가로체계를 유지하면서 활성화시켜 시대성을 이어나간다.

변화된 가로를 확보할 수 있게 건물을 분절시켰다. 앞의 과정들을 통해 가로와 필지, 건물이 서로 중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거점을 형성한다.

평면도



▷ 1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서울재동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안

현재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농 · 산 · 어촌 및 구도심뿐만 아니라 도시마저 폐교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에 도달했다. 2018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폐교가 발생했고, 서울 중부교육청 관내 20학급이 넘지 못하는 초미니 학교만 10곳을 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124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2번째 초등학교인 서울재동초등학교마저 통폐합 위기로 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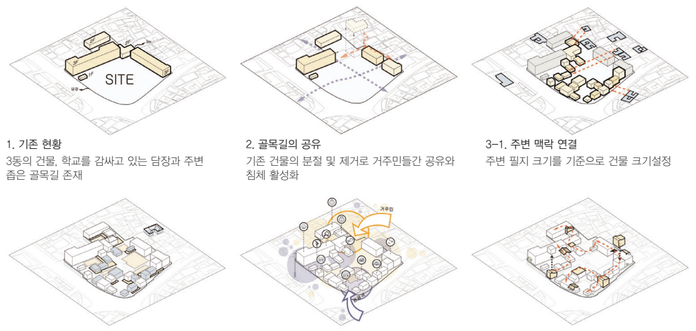
서울재동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현재 전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균의 반도 미치지 못한다.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어야 하지만 상징성을 고려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입학할 수 있는 서울형 작은 학교로 선정되었다. 이런 해결 방안은 단기간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다른 학교로 떠날 수 있는 인구만 늘어나 지역 사회의 기초단위인 초등학교의 지역거점 의미가 퇴색된다.

특히, 북촌은 관광객으로 침범되어 거주민이 떠나는 투어리피케이션 현상이 더해져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거주민이 살면서 만들어가는 북촌 특유의 전통 문화를 없애 역사의 흐름이 단절된다.

옛날부터 독립적으로 큰 대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재동초등학교는 과거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오늘날 도시의 흐름도 담을 필요가 있다.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는 축을 형성하여 도시 고유의 가로체계를 유지하면서 활성화시켜 시대성, 정체성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또한, 가로에 맞춰 건물도 오늘의 흐름을 담고자 한다. 이는 가로와 필지, 건물이 서로 중첩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거점을 형성할 것이다.

학교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는 곳이다. 좋은 교육환경은 창의적인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재동초등학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지만, 그 환경으로 인해 즐길 수 없다. 북촌의 고유한 질서가 깨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북촌의 장소성 및 정체성 안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형태를 설정했다. 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교차 안에서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한다. 즉, 충돌이 완충되는 하나의 공간을 통해 형태와 프로그램이 중첩된다. 이는 가로와 필지만큼 도시조직을 유지하는 새로운 활기가 될 것이다.

형태 과정



1. 기존 현황
3동의 건물, 학교를 감싸고 있는 담장과 주변 좁은 골목길 존재

2. 골목길의 공유
기존 건물의 분절 및 제거로 거주민들간 공유와 침체 활성화

3-1. 주변 맥락 연결
주변 필지 크기를 기준으로 건물 크기설정

3-2. 주변 맥락 연결
주변 기존 문화인 한옥과 어우러지도록 계획

4. 프로그램의 공유
거주민과 관광객 동선 고려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배치로 활용성 높임

5. 근대와 전통의 공유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이 중첩되는 전이공간 형성

계획부문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서울재동 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안

홍익대학교
양은빈

리모델링



학교 이전 후, 건물 50%가 한옥이라면 기존 **건폐율 30%에서 60%** 로 증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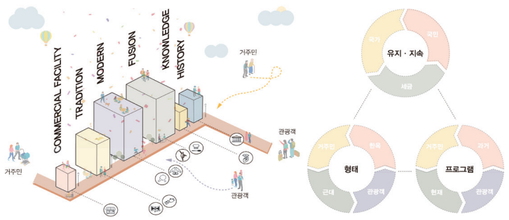
1. 채움 : 거주민과 관광객처럼 근대와 한옥이 서로 중첩되어 채워진다.



2. 비움 : 건물 사이 마당과 골목길을 계획하여 비움의 공간을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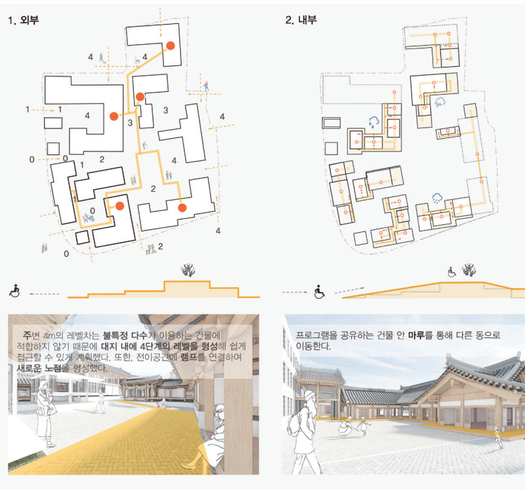
유지, 지속 가능

학교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는 곳이다. 좋은 교육환경은 창의적인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재동초등학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있지만, 그 충분한 환경으로 인해 환경을 즐길 수 없다.



프로그램 교차안에서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한다. 즉, 서울재동초등학교는 관광객이 거주민의 삶에 들어가기 전 큰 전이공간으로 충돌을 완충시킨다. 또한, 밤낮 활용할 수 있어 대부분의 초등학교 시설 이용률인 30%보다 높은 이용률을 가진다.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으로 기로, 필지만큼 도시조직을 유지시키는 새로운 활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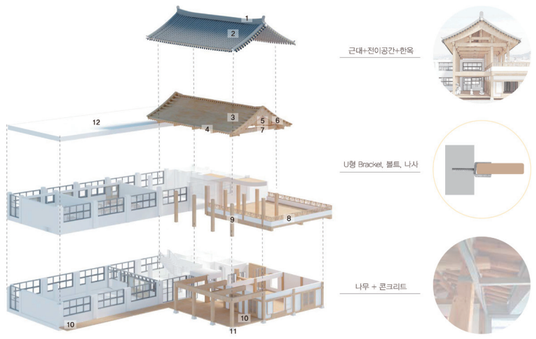
새로운 노점



위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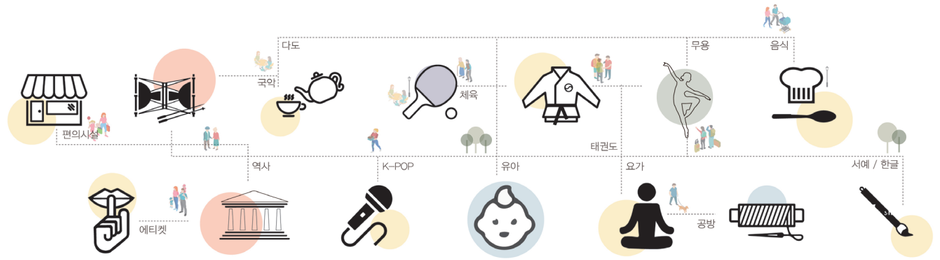
1 용마루 2 기와 3 개판 4 서까래 및 부연 5 종보 6 박공장식 7 대들보 8 파라펫 및 난간 9 나무기둥 10 마루 11 주춧돌 12 학교옥상

해결 방안

기존 문화 에너지를 지키면서 문화 에너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거주민과 관광객의 접점을 찾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북촌의 역사를 다시 켜켜이 쌓아가려고 한다.

1. 프로그램 재설정 : 전통과 현대의 중첩

북촌의 역사 및 장소성 안에서 거주민과 관광객의 서로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설정했다.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민과 관광객의 **주 동선**을 고려한 후,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끼리 배치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거주민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책임지며 청소년이 관광객과 중첩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 또한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2. 형태 재설정 :거주민과 관광객의 중첩

관광객 유치가 고민인 다른 지역에 비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관광객을 받아야하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렸다.



기존 근대식 건물과 한옥이 독립적인 형태로 단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또다른 공간을 형성했다. 이는 서로 다른 형태와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전 단계이자 연결해주는 통로로, 한옥의 마루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다.

3. 지역거점 재설정 :거주민들의 중첩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지역의 사회성, 커뮤니티 공간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폐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연결시켜 지역주민,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간 지속가능 한 체육시설



장기간 지속가능 한 문화시설



레벨차이를 활용한 지상 및 지하주차장



교육시설



도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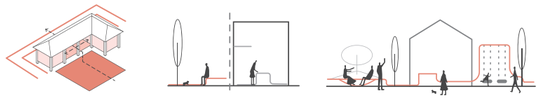


_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 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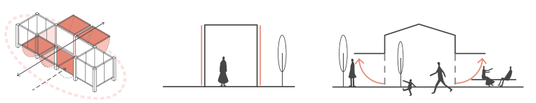
현재의 '마을'은 존재하는 것인가. 과거, 우리 고유의 도시구조 속 한옥과 재래 주택들은 마을마다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개개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는 주변과 담을 쌓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을의 모습을 지워 갔다. 더불어 기존의 가옥을 밀어내고 들어선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주거를 수용하게 했지만, 오히려 더 개인적인 행태를 가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현재,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이 촉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옥은 북촌이나 서촌과 같은 보전지구에서만 다루어지며 전통의 한켠으로 밀려나 있다. 하지만, 한옥은 우리의 정서와 미를 품고 있으며, 그 자체로의 힘을 지닌다. 우리는 한옥이 가진 외형적 특징과 더불어 독특한 공간적 특징의 현대화를 통해 주거과밀지역인 '서초구 방배4동'에 기존 도시 구조 속 한옥 공간의 삽입을 통한 도시의 재생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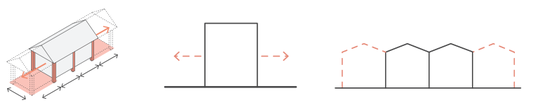
한옥의 특징



01. 외부공간과의 연계 / 기존의 단절된 외부/내부 / 한옥의 외부와 내부공간의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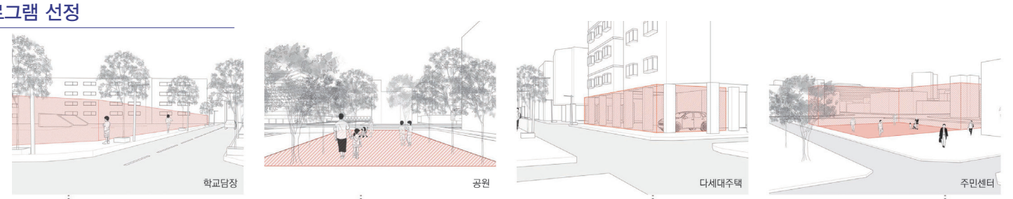


02. 공간의 가변성 / 한정적인 프로그램의 기존 공간 / 한옥의 가변성(들문)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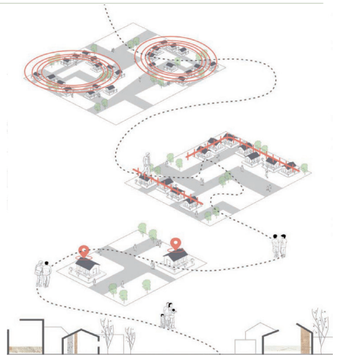


03. 모듈화된 구조와 확장성 / 확장 불가능한 기존 구조 / 한옥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칸)

프로그램 선정



우리는 한옥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도시의 거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단일 건축물이 아니라 도심 속 여러공간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시에 위치하는 활용가능한 다양한 공간들, 학교의 담장이나 공터로 존재하는 소공원, 다세대 주택의 필로티 공간들은 현재는 소통과 연결보다는 단절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외부와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이를 가변성있게 조절할 수 있는 한옥의 특징이 반영 된다면, 도시에 퍼져 있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현재 주민들의 거점인 주민 센터를 보완 함으로써 한옥이 도시 속의 거점이 되도록 하였다.



마루: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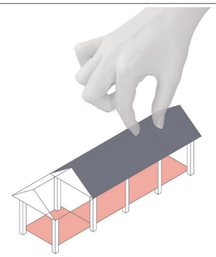
현대의 도시는 빠르게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마을'은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다. 과거 우리가 갖고 있던 도시 구조 속 한옥과 재래 주택들은 각자만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80년대 이후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은 담을 쌓으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고 마을의 모습을 지워 갔다. 또한 함께 들어서게 된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주거를 수용하게 했지만, 개인적인 행태를 낳고, 도시 조직에 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도시재생의 흐름 속 한옥은 단지, 보전지구로서 북촌과 서촌, 경주, 전주 등의 제한된 한옥 밀집 구역만을 대상으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옥이 가진 다양한 멋과 공간, 그리고 특징들, 예컨대 외부공간과의 관계나 가변성을 통해 현재 도시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그래서 현재 도시 마을의 물리적 척도 중 행정구역상 '동'을 대상으로 잡고,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며 실현가능성과 장소성, 정체성을 갖는 한옥 공간의 삽입을 통해 도시 마을의 재생을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서당마루'는 학교의 담장영역을 활용하여 등 · 하교시간에 따라 교육 공간, 갤러리, 카페와 공방으로 활용되고, '공원마루'는 소공원에 가변적인 한옥을 두어 때로는 놀이공간과 쉼터, 혹은 시장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사잇마루'는 필로티 주택에 심어져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카페와 공방으로 활용되며, 마지막 '청마루'는 기존의 동사무소의 역할과 함께 주민센터로서 작업공간과 공유공간 그리고 처마를 통한 쉼터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인 면에서 기존의 목구조를 철골구조로 대체해 구조를 단순화 시켰다.

한옥의 특징을 담은 이 현대적 마루들은 도시에 퍼져 각각이 주변을 연결시켜주는 거점이 되고, 이 거점들이 이어져 점에서 선, 선에서 면으로 확장되어 도시전체를 아우르는 매개체가 된다.

컨셉 : 마루심기



도시 공공 인프라, 주거 + 한옥 =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

"회색 도시 마을에 한옥마루를 공공이 보유한 학교, 소공원, 동사무소, 다세대주택의 유휴공간에 심어 도시마을에 점, 선, 면적요소를 가진 거점을 생성하여 도시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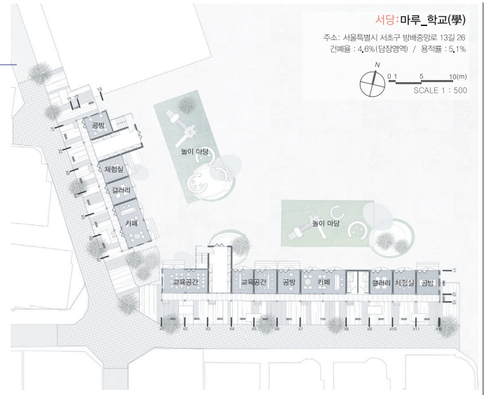
계획부문 특별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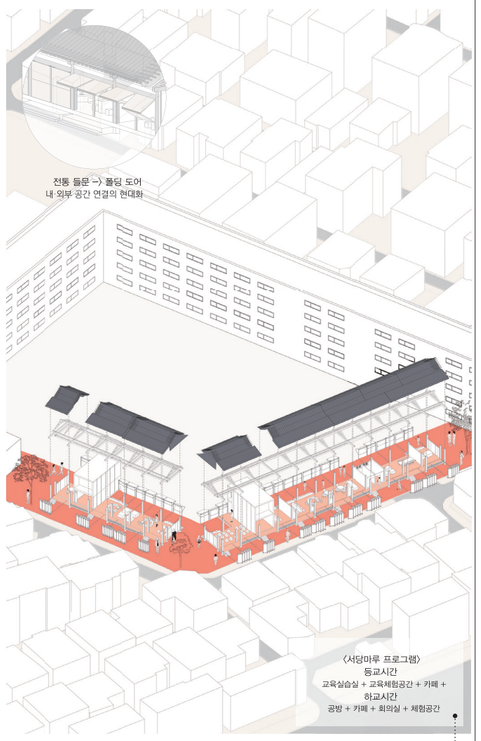
마루: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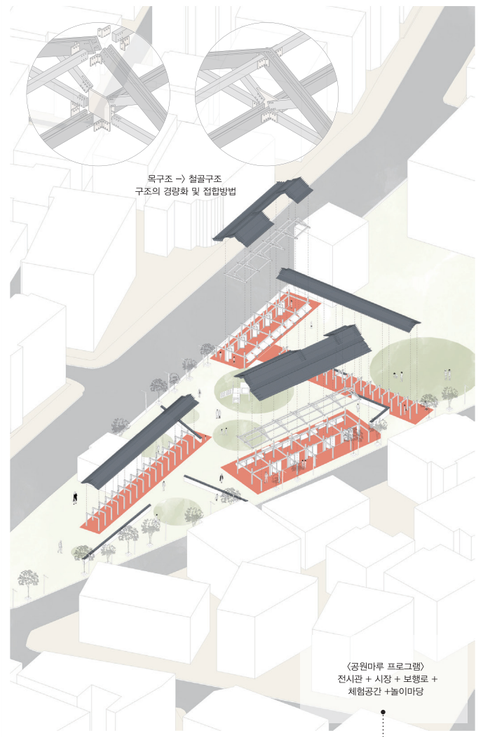
중앙대학교
양우제
김광회
김소미
오준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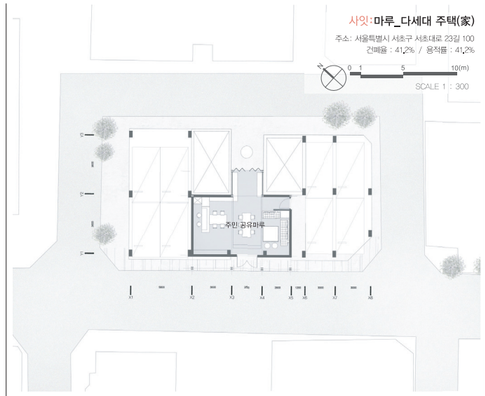




도시재생의 거점 가능성을 지닌 학교 공간 중 도시에 열려있지 않고 폐쇄적인 성격을 띄는 담장영역을 서당마루로 바꾸어 한옥의 내 · 외 공간과 중간성격의 공간을 이용하고, 가변성을 가지는 한옥을 통해 등교시간에는 교육공간으로, 하교시간에는 주민들에게 열린 과거 우물과 같은 거점을 생성한다.

과거의 도시조직에서 외부공간은 건축과 자연스럽게 대치되는 소규모 외부공간들의 연결로 생겨났다. 그러나 현대 도시조직은 그와 대조하여 도시의 틀을 주기 위해 공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텃빈 공터가 된 공원을 한옥의 '가변성'과 '칸'을 이용하여 내 · 외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새로운 현대 공간에 맞는 거점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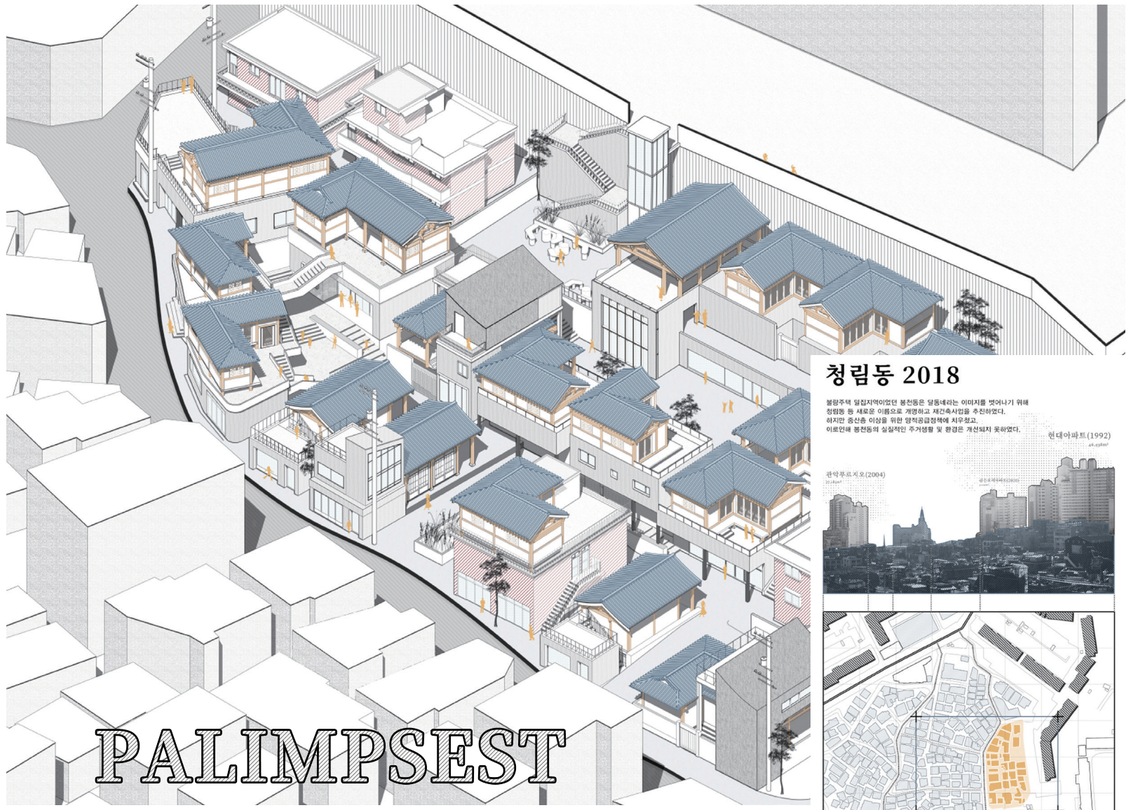




과거의 도시 구조 속 한옥과 재래 주택들은 도시에 대응하며 도시와 소통하는 공유공간이 존재하였으나 현재에 주거공간인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는 그 반대인 상황이다. 그렇기에 현재 주거공간의 유휴공간과 사잇공간에 변화된 한옥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속 마루, 공유 거점을 생성한다.

현대도시의 거점역할을 해야하는 동사무소는 단순히 건축물로써만 이용되며, 거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누구나 자유롭게 집을 오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마루'의 공간을 삽입하는 등 현대화 된 한옥의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성을 가지는 거점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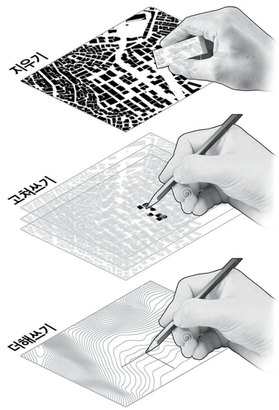




흔적 위에 더해 쓰기



1968 봉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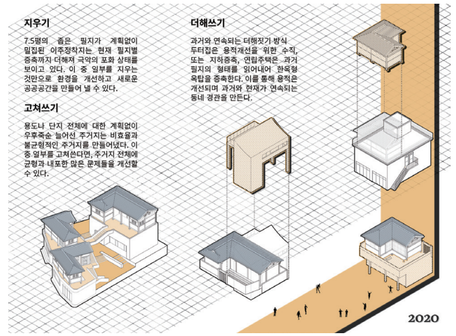
PALIMPSEST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글을 쓴 양피지' 라는 뜻을 가진 Palimpsest 는 단일 객체 아래 복합적인 의미의 레이어가 함유되어 있어, 중첩된 다양한 요소들은 상호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다.

Palim (다시) + Prsestos (부드럽게 문지르다)

강제 이주 정착지였던 봉천동은 비록 달동네와 판자촌으로 대표되는 빈민가였으나, 반 세기 동안의 강한 자체적 질서와 장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의 방식은 다층적 맥락을 소멸시키고 봉천동의 시간을 영점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곳을 다양한 역사적 변화를 담고 있는 Palimpsest 로 바라보고 숨겨진 시간적 레이어들을 발굴하여 기억의 가치를 읽고, 한옥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켜들을 회복시켜 현재적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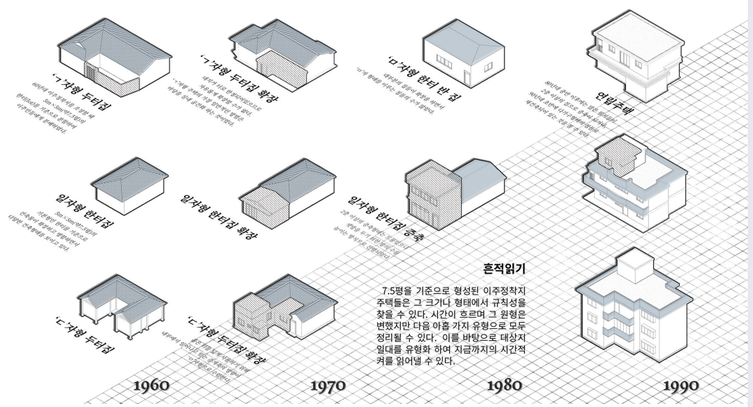
한옥을 통한 서울 이주 정착지 재생거점 만들기

도시는 긴 시간의 퇴적층과 같다. 단순한 가로체계와 건축물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쌓여진 켜가 존재하고 그 켜에 대한 이해 없이는 도시를 정확히 읽어낼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도시의 쌓여진 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증식하는 자본주의 도시 안에서 나아갈 방향 역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팰럼시스트(Palimpsest)는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글을 쓴 양피지, 또는 고친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의 양피지 위에 여러 흔적이 중첩되어 복합적인 의미를 유발하는 것을 뜻한다. 도시를 바꿔나가는 작업은 이런 팰럼시스트를 읽듯이 도시의 다양한 켜를 읽고 그 흔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을 써나가는 작업과 유ㅁ사하다. 특히 한옥은 우리 도시에 남은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에 도시를 읽는 유효한 수단이자 글을 써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옥을 통해 우리의 도시를 읽어내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상지인 봉천동 일대는 서울의 강제 이주정착지 중 하나로 1960년대부터 조성된 주거지이다. 당시 이주정착지 정책은 구릉지에 7.5평을 기준으로 이주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릉지에 집단 조성된 주거지는 대부분 불량주거지, 흔히 말하는 달동네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 대부분 이주정착지는 아파트로 재개발되거나 재개발 대상지가 된 실정이지만, 역설적으로 보존된 한옥마을을 제외하곤 서울에서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의 삶의 켜가 남아있는 주거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을 다양한 시간적 켜를 담고 있는 팰럼시스트로 보고 숨겨진 시간적 흔적들을 발굴하여 기억의 가치를 읽고, 한옥을 통해 시간적 켜들을 회복시켜 현재적 공간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지에 쓰는 개발방식이 아닌, 이런 '흔적 위에 더해 쓰기'를 통해 만들어진 동네는 저마다 내가 최고라고 외치는 수많은 아파트들 사이에서 우리의 삶과 도시가 지나온 긴 세월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바람직한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부문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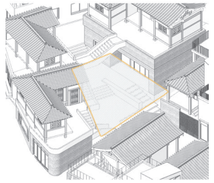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Palimpsest : 흔적 위에 더해 쓰기

중앙대학교
장광민
이자윤
김재우
김나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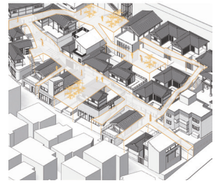
지우기 : 맹지

고밀도의 이주정착지는 많은 맹지로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 이 맹지들 중 일부를 지우는 것만으로 고밀도의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이주정착지만의 고유한 공공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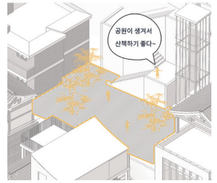
지우기 : 골목길 만들기

주거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당동네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 마을주민과 외부인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쓰는 골목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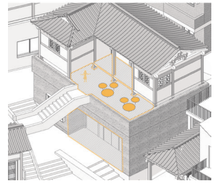
고쳐쓰기 : 공지활용

이주정착지는 전체 대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비효율적으로 산개된 공지들이 존재한다. 이런 공지들은 약간의 변형만으로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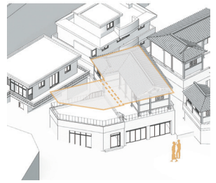
고쳐쓰기 : 용도변경

맹지를 지우며 새롭게 만들어진 골목길과 마당으로 공적인 성격이 강해진 공간은 공공을 위한 용도로 변경해 주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주거영역을 분리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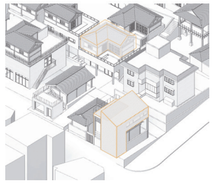
고쳐쓰기 : 합필

이주정착지의 기준이 되는 7.5평은 수익성 및 생활편의성 면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 매우 부족함으로 일부 합필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해쓰기 : 한옥증축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한옥 위로 필로티로 건물의 띄워 증축하는 방식과 가구식 공법으로 분해와 재조립이 가능하다는 한옥의 장점을 이용한 양옥 위에 한옥을 얹는 방식으로 양옥과 한옥의 조화를 보여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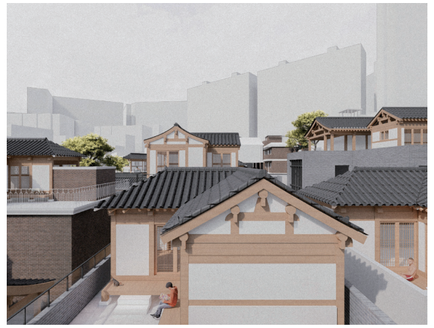
더해쓰기 : 경사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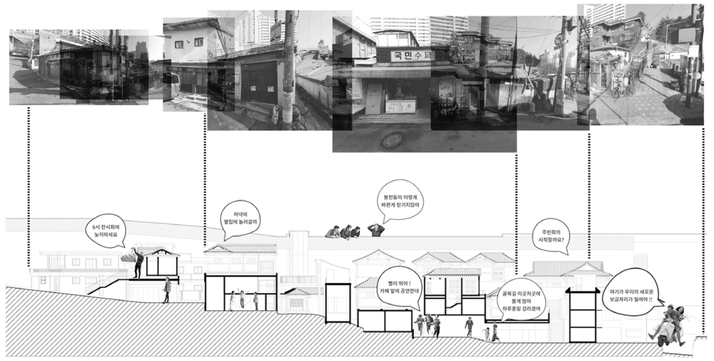
가파른 지형 위에 지어진 이주정착지와 재개발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18M의 거대한 옹벽으로 단절되어 있다. 이 대지를 도시적 맥락에 의해 계단식으로 판을 만들어 건물을 얹어 단절되어 있던 두 커뮤니티를 연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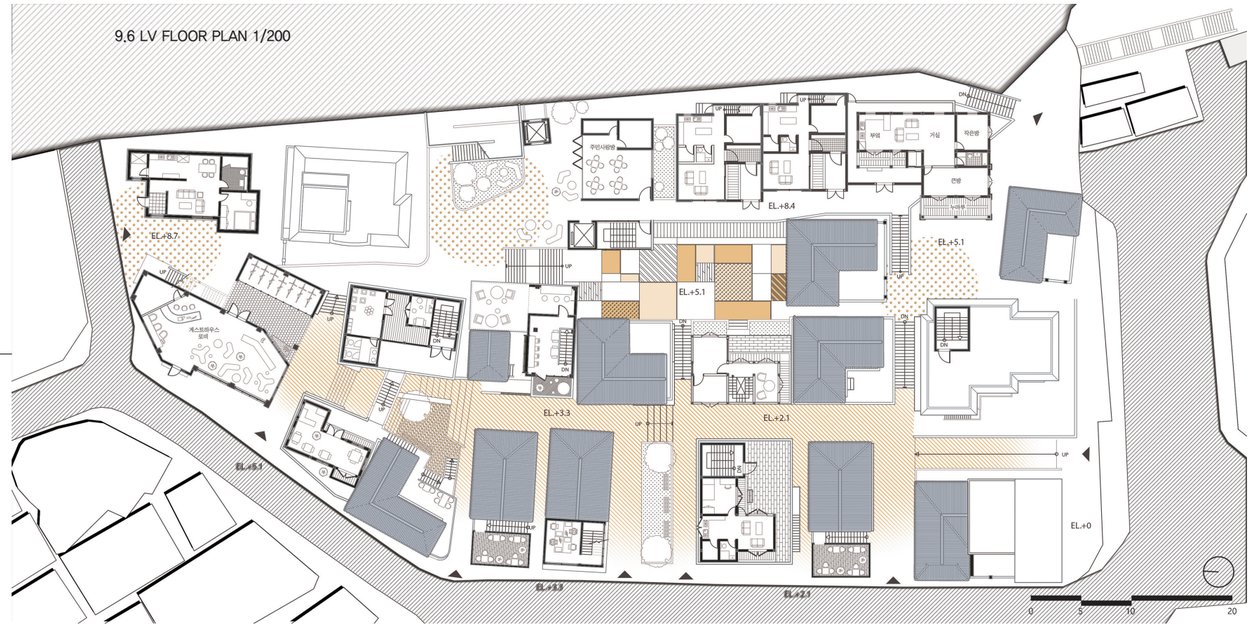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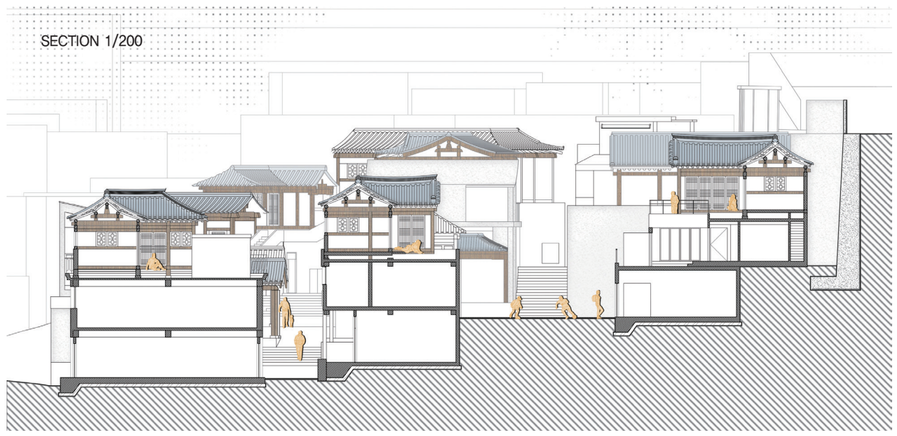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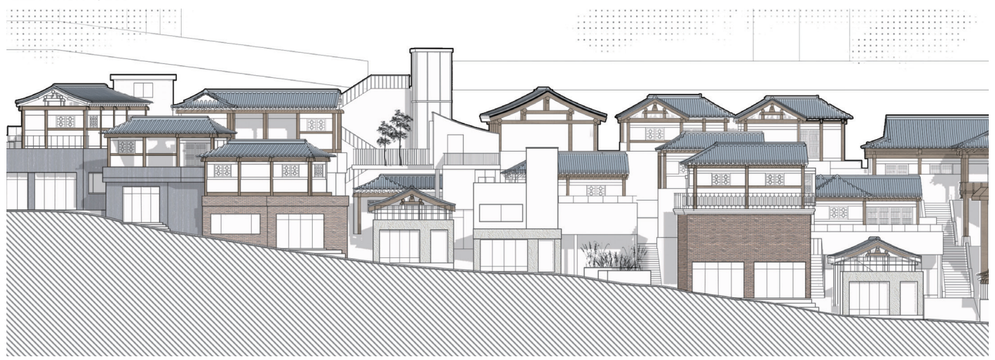
9.6 LV FLOOR PLAN 1/200



SECTION 1/200



ELEVATION 1/200





MADAM YONGDU

골목길과 그리드

시민들의 삶이 겸손한 담을 넘나들고 안마당과 바깥마당에서 펼쳐지며 이야기했던 과거는 이제 삭막한 회색 도시의 짜여진 구조 안에서 개개인들의 분리된 삶으로 변화하였고 도시의 경계와 사람들의 경계는 선명해졌다. 우리는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하여 서로 관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마을을 제안하고 삶의 터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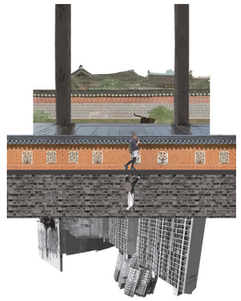
공간을 담는 한옥

한옥은 도시의 고유한 선과 흔적을 유지하면서 도시마을의 활기찬 삶터를 담는다. 이러한 형상과 행위를 담는 것은 내부에서는 마루가, 외부에서는 담장이 불확정적인 경계를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을과 집의 경계에서 낮은 높이의 담장이 도시의 선을 흐리고 마당과 바깥의 관계를 담고, 마루는 방과 방 사이, 방과 마당 사이와 같이 한옥의 공간구조의 선을 흐린다. 이런 행위를 통해 도시마을의 조직을 담고 터 위의 삶을 담음으로 도시의 경계를 재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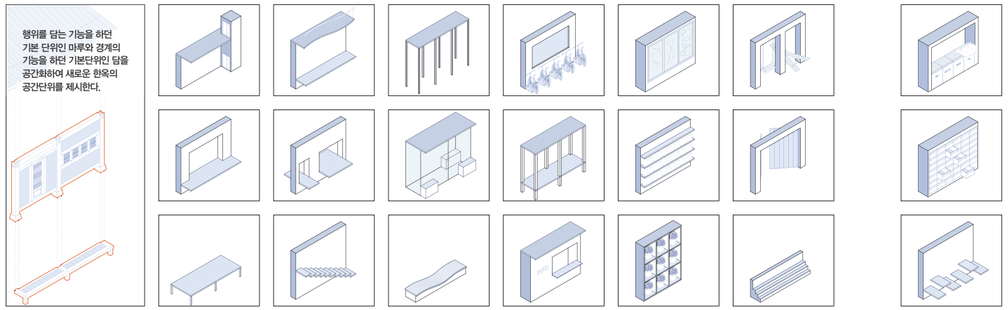
마루와 담을 통한 경계의 재구성

현재 서울시 용두동은 침체된 용두시장과 그 앞의 낡은 한옥들로 구성된 과거의 흔적들을 담은 동네이다. 오래된 건물은 흔적을 유지하며 비워내고, 신축 건물 사이의 명확한 경계는 마담(마루+담)을 활용하여 불확정적 영역을 형성하고, 기존 건물들과 결합할 때에는 겸손한 행위로 도시조직들 사이의 관계를 유도한다. 마담 안에는 생활SOC, 숙박 및 상업시설을 구상하여 지역주민과 외부인의 소통을 유도하고 좁은 가로환경을 마루와 담의 입체적인 확장에 기반한 2층 보행로를 계획하여 개선한다. 또한 한옥을 적층시킴으로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여 기존 도시개발로 인한 커뮤니티의 침체를 재생한다. 이렇게 도시에 퍼져있는 마루와 담이 용두시장으로 들어와 과거 가로와 시장의 밀접한 관계를 도가와 시전행랑의 활용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마을의 거점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워내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서 남겨진 시간의 켜를 깨드리지 않으면서 용두동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표현하여 개성 있는 마을을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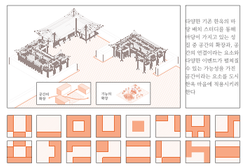
BLURRING BOUNDARY



MADAM TYPOLOGY



MADANG TYP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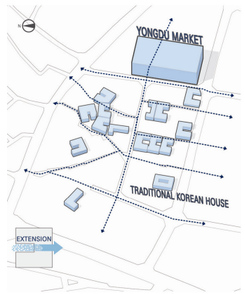
PLO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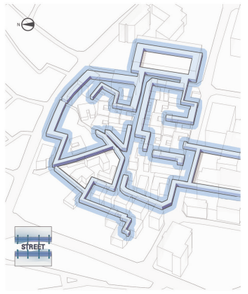
SITE ANALYSIS



URBAN INTE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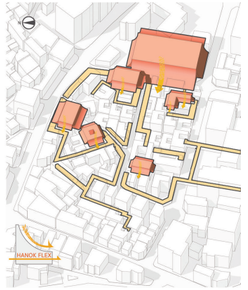
과거의 도시 조직 모습인 골목길과 현재의 도시 조직 모습인 그리드가 만들고 있는 경계를 한옥을 통해 연결하고 재구성한다



신축 건물과 옛 한옥들이 만들고 있는 경계를 '마당'을 활용하여 불확정적 영역으로 형성하고 도시조직 사이의 관계를 유도한다



기존 한옥 마당에 대한 스터디를 바탕으로한 마당들을 각 블록의 내부에 배치하고 연결하여 유기적인 도시조직구조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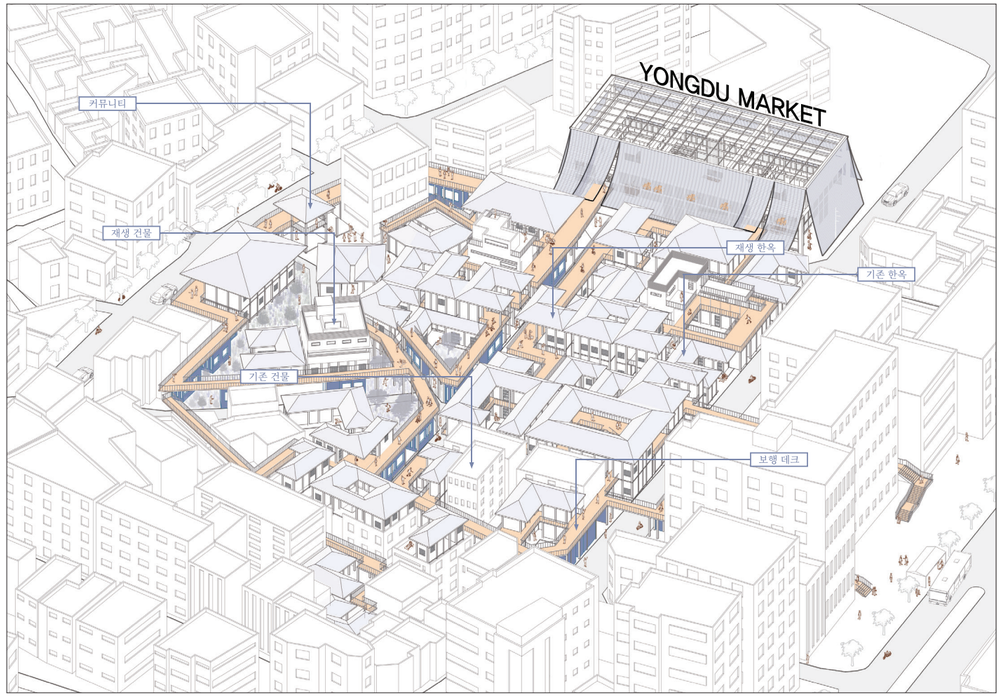
마루와 담의 공간화를 통한 입체 보행로와 처마를 재해석한 지붕을 통해 시간의 켜를 깨트리지 않으며 도시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계획부문 은상

MADAM YONGDU

중앙대학교
송형창
윤영록
송영진
전용준

ISO VIEW DI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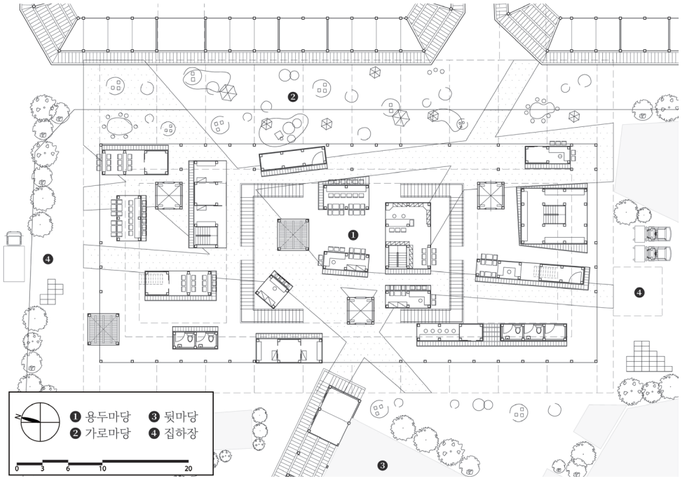
MARKE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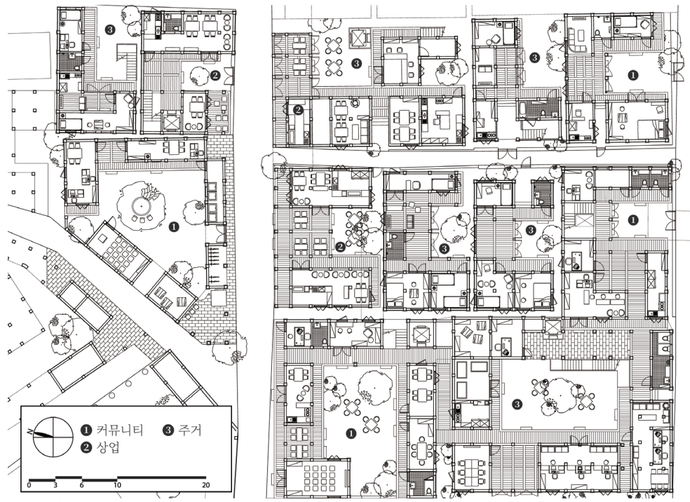
COMMUNITY—MARKET VIEW



MARKET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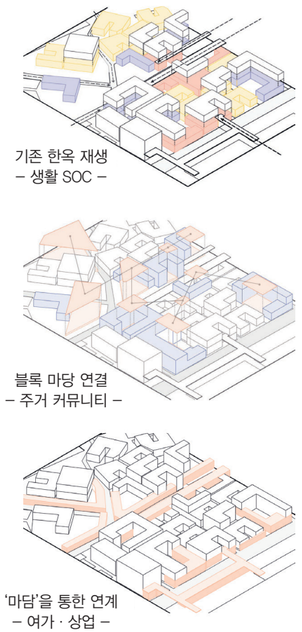
COMMUNITY PLAN



MARKET DIAGRAM


도시 가로 유입
시장길의 영역화
도시로의 확장

COMMUNITY DIAGRAM


기존 한옥 재생
– 생활 SOC –
블록 마당 연결
– 주거 커뮤니티 –
'마담'을 통한 연계
– 여가 · 상업 –

SECTION VIEW DIAGRAM







계획부문 은상

空간에서 共간으로

동양미래대학교
이수연
권예정
한승우

空간에서 共간으로

고대앞 마을은 장기간 재개발사업 찬반문제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소통이 단절되었다. 재개발로 묶인 동안 건물은 관리되지 않아 노후되고, 인접한 골목으로, 마을로 퍼져 침체되기 시작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지 후 재개발을 외치던 주민은 하나둘 떠나고, 떠난 자리엔 높은 건물이 들어서며 마을의 정취와 정체성이 희미해져간다. 몇몇 주민들은 희망지사업을 신청하는 등 마을 발전을 위해 고민하지만 소수인원으로 녹록치 않다. 마을은 주민들이 다함께 가꾸는 삶의 터다.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며 가꾸어갈 때 비로소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지속가능한 도시마을이 된다. 우리는 그 소통공간을 한옥에서 찾았다.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던 한옥의 열린 공간을 이용해 이웃과 마을의 소통의 장을 제안한다.

한옥을 비우다. 첫 단계로 벽과 담으로 닫혀있던 한옥을 열어주었다. 주요 구조부를 유지한 채 길과 인접한 벽을 허물어 칸을 비우고, 높은 담을 낮추고 허물어 한옥을 터주었다.

한옥과 길을 잇다. 비워진 공간은 자연스레 길과 이어진다. 길에 이어진 공(空)간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골목길을 밝혀준다. 비워진 칸은 마루와 마당이 되어 사람이 머물고, 회랑이 되어 길을 넓혀 밝힌다. 담은 장애물이 아닌 소통할 수 있는 창이 된다. 그렇게 공(共)간이 된다.

새로운 공간으로 채우다. 비움으로써 손실된 면적을 수평, 수직 증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유리라는 현대 재료를 통해 외부를 내부로 끌어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목구조의 수직적 한계를 ㄱ형강과 가새를 통해 보강한다.

이렇게 가꾸어진 한옥에 마을과 대응하는 사회간접자본(생활SOC)를 담아 마을을 안정적으로 존속하고자 한다. 인근 고려대학생의 동선에는 대학가로에 필요한 시설, 생활가로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화재로 전소된 공터에는 주민들을 묶어주는 공간을 제안한다.

한옥으로 골목을 밝히고 나아가 마을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주민뿐만 아닌 도시와도 연결된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간다.

마을 全圖

고려대 정문



열린 골목길

소통 툇마루

비우고 채워지는 마당

공유 마당

共(공)간 토지이용계획

1. 닫혀있던 골목을 마을의 잠재자원인 한옥을 비워 열어준다.



2. 한옥의 열린공간이 길과 연결되어 골목길이 재생되고, 나아가 주민들간 닫혀있던 소통이 이어진다.



3. 편의시설이 부족한 마을에 SOC를 한옥을 통해 지원, 이를 마을의 중심 한옥SOC가 묶어준다.



4. 한옥(점)으로 열린 골목길(선)과 한옥SOC를 통해 마을 관계망(면)이 형성되고 지역과 대학,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활기찬 대학가 마을을 그린다.



내맘대로 한옥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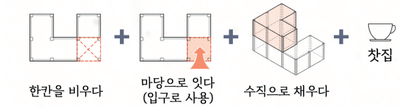

마을 찻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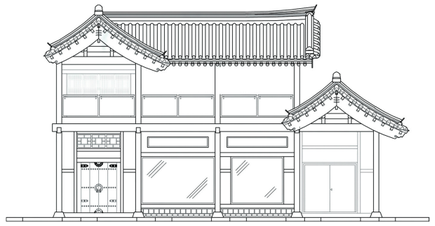

한옥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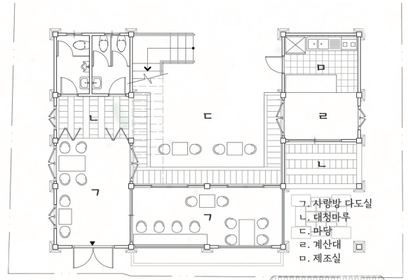

한옥 공유시설 (공유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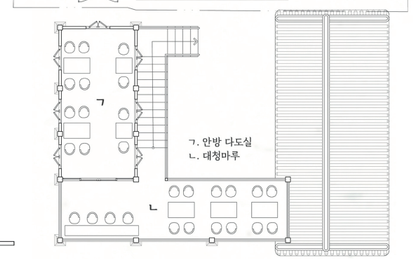
한옥에 마을 입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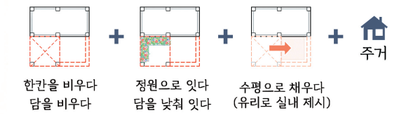
유형一. 마을 찻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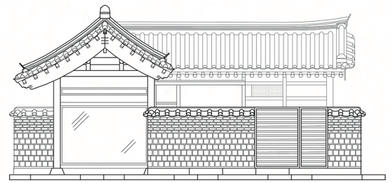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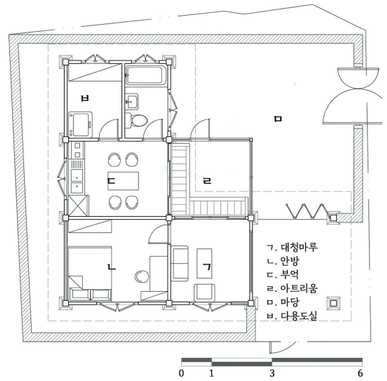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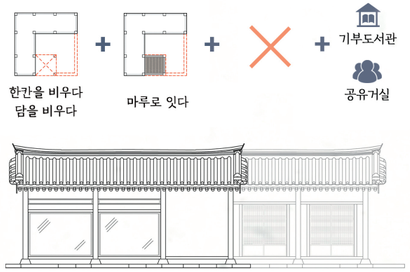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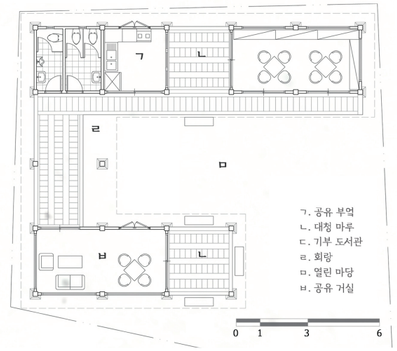












계획부문 동상

청향만리(淸香滿里)_ 청춘의 향기가 퍼지는 청향마을

동양미래대학교
공도영
김보람
김석원
김규영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청량리는 과거 서울 성장의 중심이자, 지구의 거점마을로 번성했으나, 지금은 쇠퇴하여 시대에 뒤쳐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를 회복하고자 서울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에 있다.

목표 및 방향

우리는 이곳의 역사적인 자원인 재래시장과 한옥마을을 이용하여 모두가 즐기는 시장 한옥마을로 재생시키려 하며, 인근 제기동에 분포한 한옥마을들에 표본이 되려고 한다.

세부 목표 및 디자인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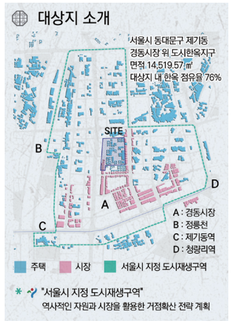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청량리시장의 이미지와 달리 마을의 이미지는 많이 사라진 상태이다. 많이 낡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이 거주할 환경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남아있는 한옥들의 잔재를 통해 한옥과 시장을 연결하고 다시 마을의 활기를 불어 넣어주려 한다.

먼저, 한옥의 보존 여부를 가꾸기, 살리기, 바꾸기의 단계로 나눈다. 가꾸기 단계는 기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외부나 내부에 불필요한 짐들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주거지에 해당하며, 살리기 단계는 한옥을 조금씩 연장하거나 축소하여 길을 내주고, 내부 마루 마당공간을 지니게 하는 사업으로 주거와 달리 한옥의 미를 살려 마을과 시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바꾸기 단계에는 한옥의 부재 위치는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한옥을 잘 모르는 세대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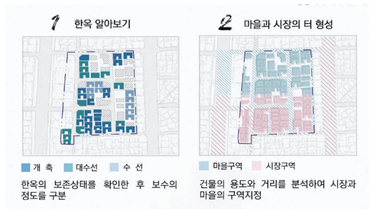
다음 시장에서 나오는 거리의 성격과 마을이 지니고 있는 골목길 및 길의 성격을 연장하여 마을과 시장의 구역을 형성하고, 형성된 구역에 청년 및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크게 4가지로,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청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기회를 주는 청년의 장, 마을의 골목길을 이용하여 한옥의 미를 보여주는 담장 미술관, 업무가 늦게 끝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야시장이 있다.

위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마을에 청춘의 향기를 불어 넣고 다시금 서울 속 도시 한옥마을로 변화시켜, 청량리의 향기를 만리까지 퍼트리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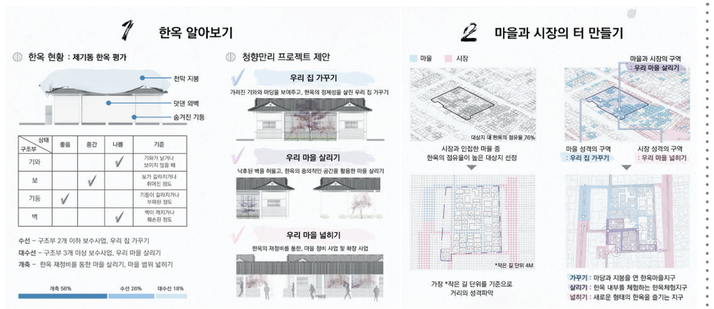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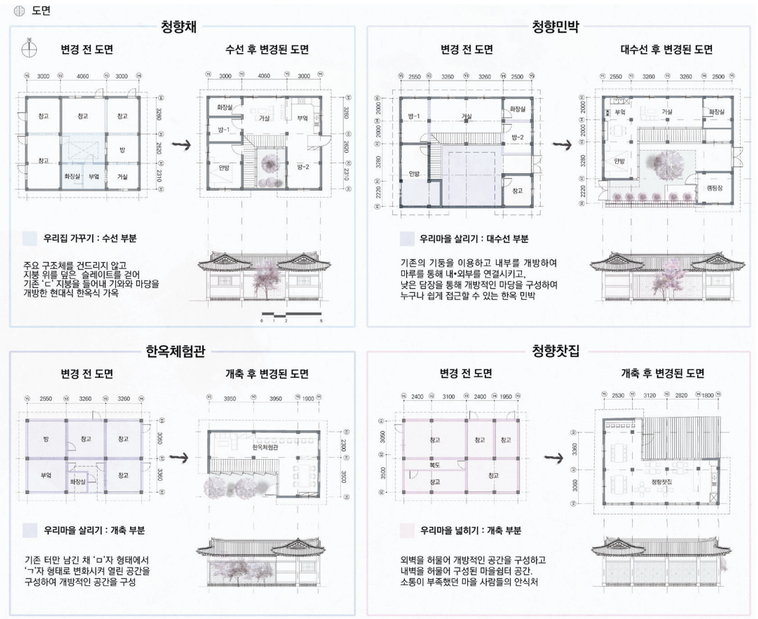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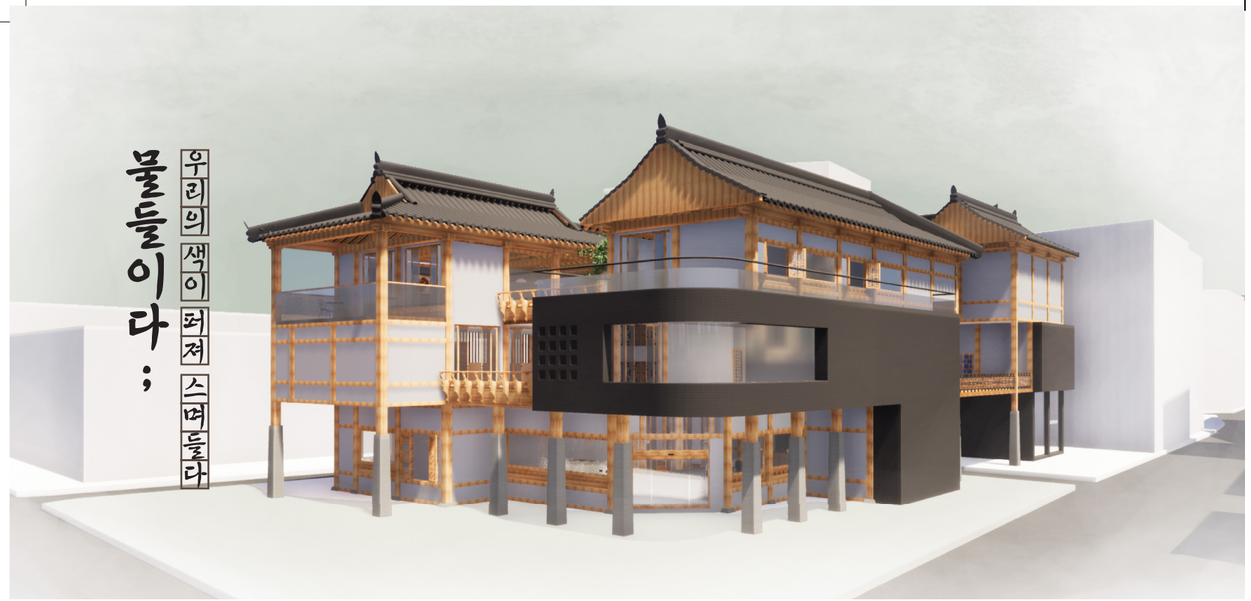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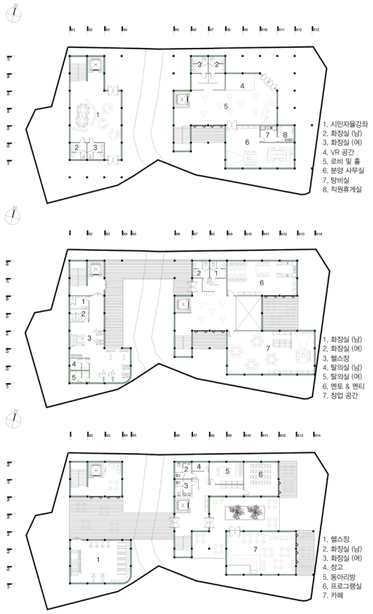
계획부문 동상

물들이다 ; 우리의 색이 퍼져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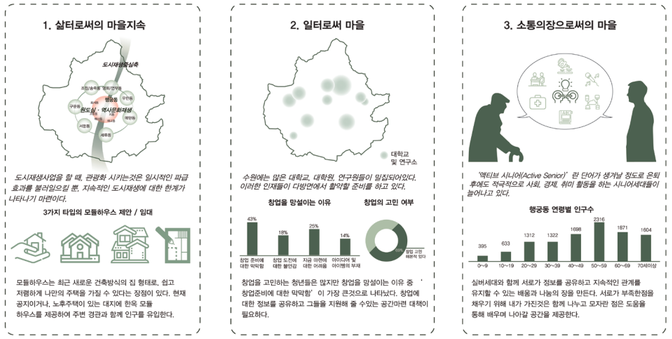
원광대학교
박현창
이승연
김성규
김세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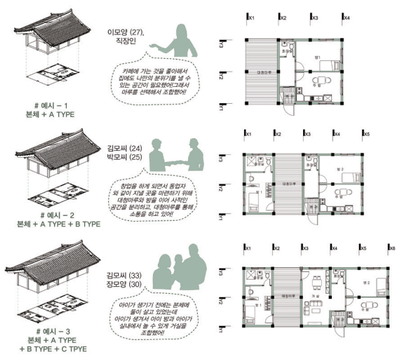
평면도



도시재생의 방법적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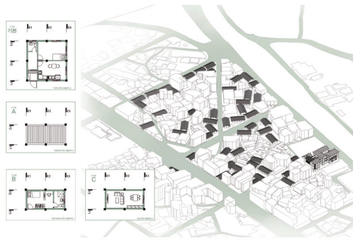


한옥 모듈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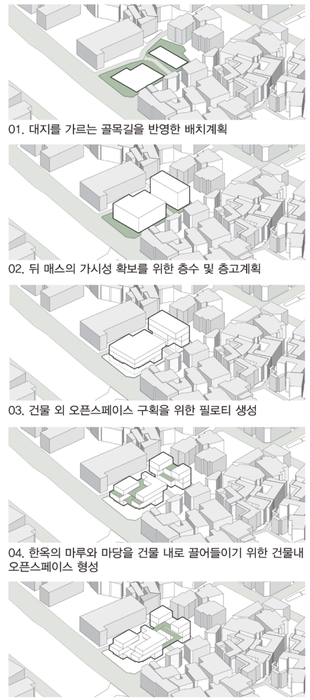


모듈 하우스 시나리오

생활을 공유하며 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구조적 요소가 필연적 요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존재한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지속적 도시재생은 시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 그 도시의 내구성 유지가 중요함과 동시에 그 곳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민들의 꾸준한 이용과 관리, 그 만큼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20 – 30대의 1–2인 가구 증가로 그에 걸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은 나날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응하여 저렴하고 개성이 표현 가능한 한옥 모듈하우스를 제안한다.



매스 프로세스


01. 대지를 가르는 골목길을 반영한 배치계획
02. 뒤 매스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층수 및 층고계획
03. 건물 외 오픈스페이스 구획을 위한 필로티 생성
04. 한옥의 마루와 마당을 건물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건물내 오픈스페이스 형성
05. 앞동과 뒷동을 연결하는 ㄷ자 형태의 연결마루 형성. ㄱ자와 ㄷ자, ㅡ자 한옥형태를 반영한 지붕계획

물들이다 ; 우리의 색이 퍼져 스며들다

"도시마을"은 사회 · 경제 · 정치 활동과 교통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개발이 덜 진행되어 비교적 소수의 주거지를 구성요소로 한 마을 개념의 지연단체이다.

오래된 도시마을의 길과 필지, 주택들은 우리네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마을의 물리적 공간은 노후화 되었으며 대형화, 고층화, 편의성 중심의 물리적 공간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며 존중 · 공감 · 협동이 공존했던 "행복한 마을"이라는 삶터의 활기는 사라져가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273번지 외 5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대지는 수원 화성 성곽 남쪽 아랫마을에 속하며 도시재생이 진행 중이다. 선정한 대지는 문화재 보호 구역, 저층 개발로 제한되고 있다.

그로 인해 상권투입,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으로 주변 콘크리트 건물들은 노후화 되어있다. 대지 주변은 도시재생의 노력으로 노인복지관과 아동복지센터가 자리해 있다. 하지만 활기차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노인과 아동뿐만이 아닌 청년들의 유입이 시급한 반면에 청년들을 위한 거주환경, 일자리 그리고 노인, 청년, 아동이 모여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은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침체된 도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먼저 도시의 골목과 필지를 유지하고, 노년층의 삶이 녹아든 낙후된 주거환경을 되살려, 20 – 30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하고 개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한옥 모듈 하우스를 제안한다. 청년의 일자리 및 세대통합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위해서 창업 · 활동지원시설을 계획하였다. 이 시설은 여러 대지가 모여 골목이 있는 선정대지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분동으로 계획하고, 한옥의 전통적 ㅡ자, ㄱ자, ㄷ자 형태를 매스에 반영하였다.

창업프로그램과 멘토– 멘티 프로그램, 모듈하우스 분양상담시설 등을 갖춰 20 – 30대와 노년층 간에 지식을 공유하며 청년들의 활기찬 색과 노년층의 삶 속 지혜의 색이 섞여 녹아든 도시의 색이 짙어지기를 바라며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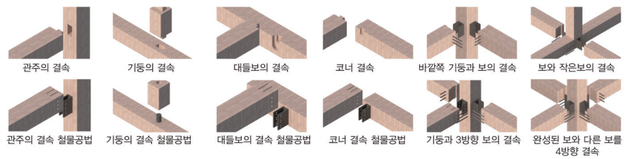
건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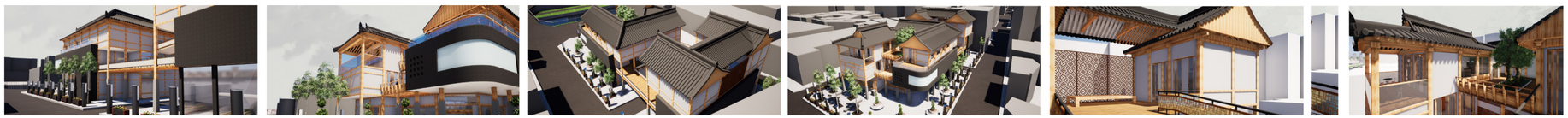
#물들이다 #녹아들다 #채워넣다



현재 수원시의 상권, 문화, 역사, 예술 등의 요소들은 오래시간의 공백으로 단절의 벽에 가로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채 도시의 색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백 안에, 새로운 주거환경과 창업활동지원시설을 채워넣음으로써 청년층의 색과 노년층의 색이 조화롭게 섞여 녹아든 도시를 재현해낸다.

구조적 해결







서순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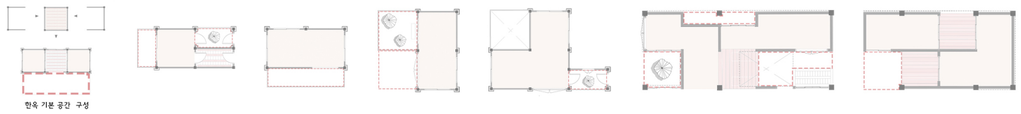
서순라길은 종로구 종묘를 애워 싼 돌담길이다. 과거에 종묘를 순찰하던 순라청이 있었고 서쪽에 위치한다고 하여 서순라길이라 했다.

가로환경개선사업 이후 의미가 쇠퇴하여, 보행량이 적고 주변이 침체되어 서순라길은 활기를 잃고 있다. 이에 역사적 가로의 의미를 되살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서순라길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을 아우르는 길로써 서울 중심지 속에서 다양한 전통문화와 역사적 공간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익선동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이며 다양한 교통방법으로 접근성도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는 서순라길이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이 되기 위해 다양한 문화와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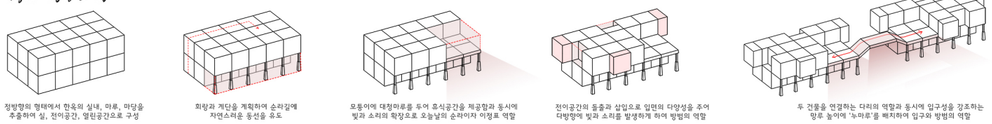
1층 상가는 순라길에서 회랑으로 자연스러운 동선을 유도하였다. 주변 건축과 환경 맥락을 고려하여 실을 배치하고 전이공간과 마당과 같은 진입부와 중정을 배치하였다. 열린 공간은 2층 마당의 보이드와 중첩하여 마당의 깊이를 주는 동시에 1층과 2층의 시선과 빛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의 게스트하우스를 연결하는 동시에 서순라길의 게이트가 될 수 있도록 '루'를 배치하였다. '루'는 게스트의 소통공간이자, 서순라의 의미인 '방범'의 역할을 한다. 루마루의 불빛은 등대의 불빛이고 서순라의 입구를 알려준다. 1층 모퉁이 대청마루 이용자의 시선 확장과 소리, 빛의 확산은 오늘날의 '순라'이자 이방인의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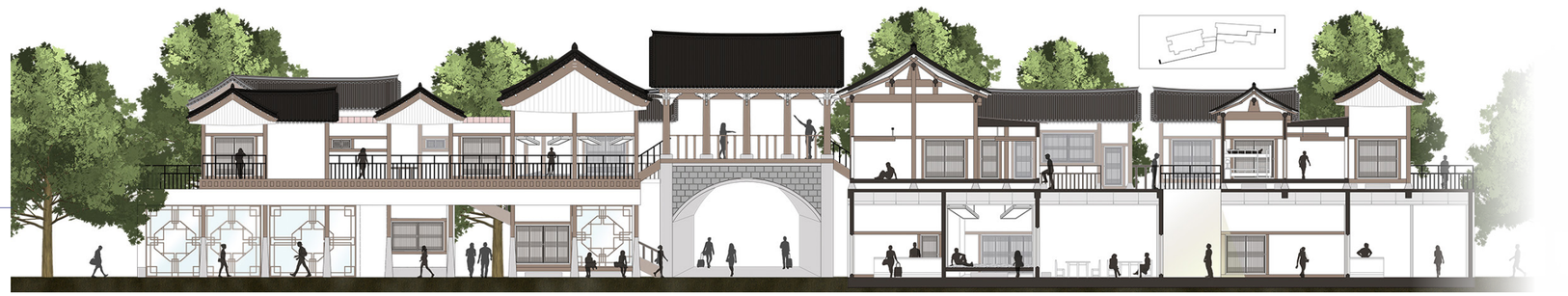
한옥에서 '실내'+'마루'+'마당'을 추출하여 '실' + '전이공간' + '열린공간'을 구성하였다. 상가의 전이공간은 테라스와 회랑으로 계획되었고, 열린공간은 중정과 정원, 진입공간이 되었다. 2층 게스트하우스의 실과 실은 전이공간으로 연결되어 동선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열린공간은 하늘로 열린 마당과 1층으로 열린 보이드, 대상지 밖으로 열린 작은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한옥 공간 구성 재해석



형태 생성 과정





계획부문 동상

서순라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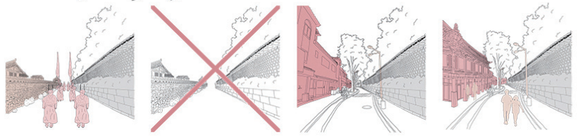
동양미래대학교
한용희
조문환
원성민
양정택

종묘를 따라 형성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순라길은 이전까지 세계문화유산 주변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할 만큼 미개발된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역적 가치성을 인정 받으며 문화재생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한옥마을이 되게 하기 위해 상업과 사람이 같이 자라는 공간 문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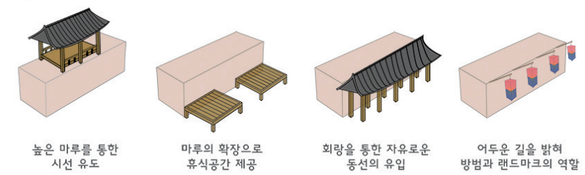
서순라길 주변을 둘러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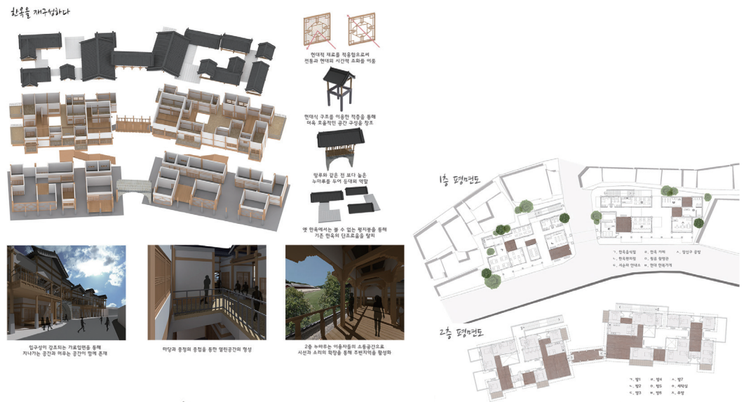


서순라길 역사를 되돌아보다



설계개념 - 순라









옥인동 주변 문학예술관련 장소

1 옥류동각자
2 송석원각자(추정)
3 송석원터 (추정)
4 대오서점
5 보안여관
6 이상가옥
7 노천명가옥
8 이상범가옥
9 이중섭가옥
10 윤동주하숙집
11 박노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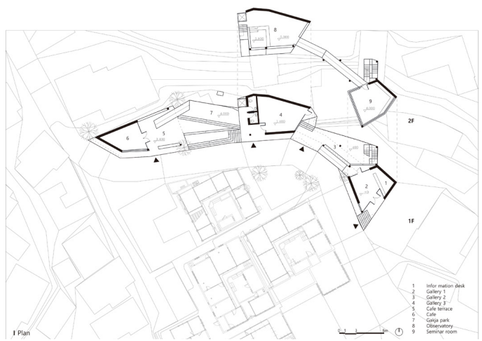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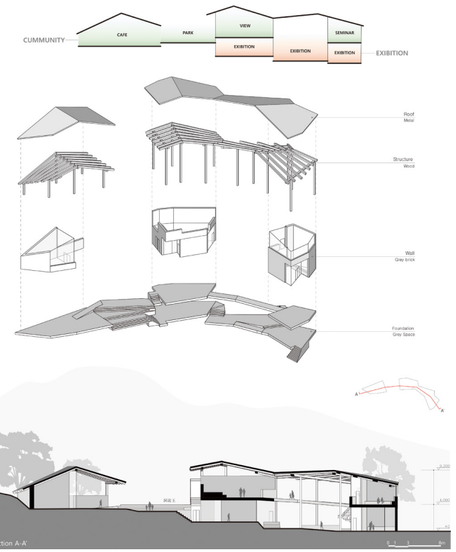
조선시대 인왕산에는 시와 노래, 글씨와 그림을 즐기던 인왕산 공동체가 있었다. 인왕산 공동체는 시인, 음악가, 화가, 서예가로 이루어진 문학동호회로써 시문학동인인 송석원시사가 잘 알려져 있고 옥류동각자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러한 옥인동의 문학예술을 기록하고 논의할 수 있는 우리문학예술관을 계획했다.
해당 대상지는 최근 옥류동 각자가 발견된 곳으로 조선시대 문학예술역사에서 중요한 장소로써 옥인동의 문학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이다.



이인문의 '송석원시회도'를 보면 사람들이 바위 위에 모여 앉아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바위와 같은 기단이 필요하다. 또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둘러싸여 있어 위요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옥'이다. 벽으로부터 시작되는 서양건축물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한옥은 기단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다양한 레벨의 기단을 중심으로 하여 얹어진 기둥과 지붕은 자연을 향해 자유롭게 열리고 닫히는 공간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공간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시와 그림을 즐기고 옥인동의 역사를 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가파른 경사를 따라 올망졸망한 건물들이 모여있는 옥인동의 컨텍스트에 걸맞게 큰 건물보다는 한옥과 같이 작은 방들이 칸칸이 모여있는 공간을 계획하였다.







계획부문 입선

옥인동 우리문학예술관

건국대학교
노혜정

옥인동은 대부분이 1,2층의 건물인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인왕산을 따라 급격한 경사를 따라 주거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좁은 골목길 및 계단길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옥인동은 많은 건물과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빈 집 또한 많은 상태이다. 옥인동 47 일대는 현재 서울시에서 역사문화 보존 목적으로 지역내 생활문화유산은 보존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옥인동을 관통하는 주요도로와 옥인동을 우회하는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옥인동의 일부 부지를 매입하였다.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47일대

옥인스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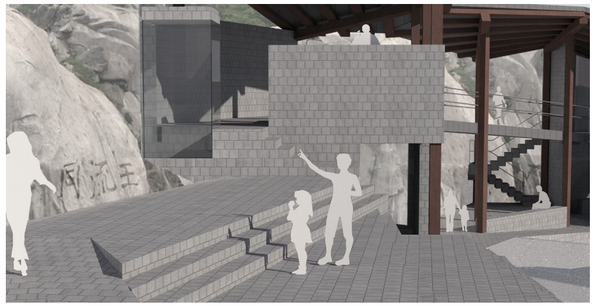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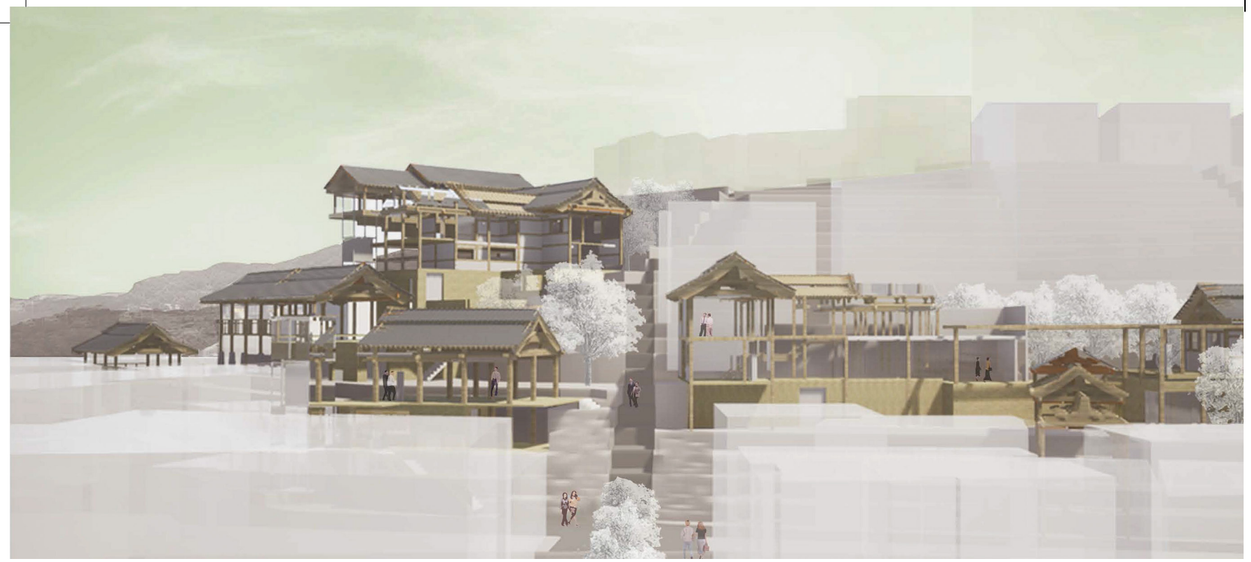
옥인동 주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를 아우르는 문학예술장소가 다수 분포해있어 우리나라 문학예술의 역사와 작가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한옥부터 벽돌, 타일을 붙인 근현대의 건물까지 역사를 지닌 작은 건물들이 제각각의 이야기를 품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옥인동만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현대에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급경사를 가지는 옥인동의 대지와 올망졸망한 주변 건물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문학예술 콘텐츠

예로부터 우리나라 문학예술의 요람으로써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해낸 옥인동의 역사를 이어 "옥인동 우리문학예술관"을 구상하였다. 옥인동 우리문학예술관은 문학 및 예술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지원하고, 방문객에게 옥인동의 역사와 문학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현재까지 역사가 살아 숨쉬는 활성화된 마을의 모습을 지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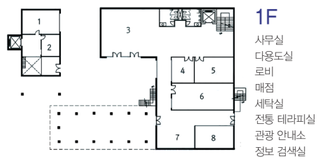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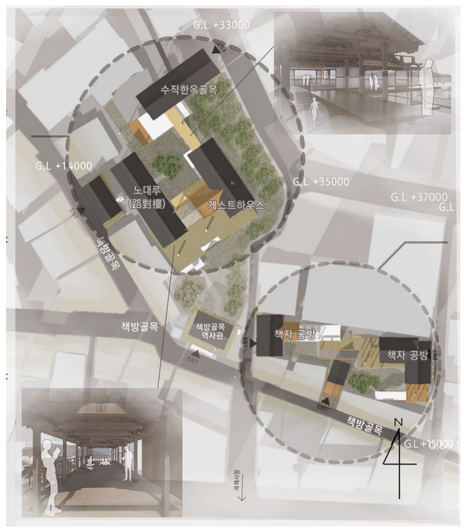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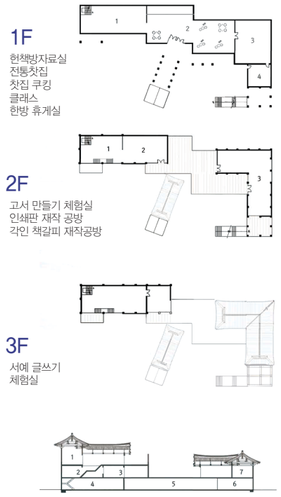




보수동 책방골목은 8.15 광복 직후 오늘날의 부산 국제시장이 대평양 전쟁으로 주택가가 철거되면서 빈터로 남게 되었을 때 일본인이 남기고 간 책을 난전에 두고 팔았는데 그 장소가 개인소유가 되자 보수동 앞길로 책장사들이 자리를 옮겨 앉게 되면서부터 생겨나게 됨. 60년대 초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출판문화가 자리를 잡지 못하자 수많은 지식인과 학생들이 책을 구하기 위해 헌책을 사고파는 일이 잦았으며, 이에 보수동 골목길은 수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로 붐비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구도심의 쇠퇴와 지역상권의 침체로 인해 고유의 멋과 부산의 근대 역사문화적 가치가 퇴색하고 있으며, 지역정체성 마저 변질되어 가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책방 골목의 핵심가치 인 책방골목의 고유 특성 유지하면서 재생되어야 할것이다.







보수동 2019 책방골목을 마주한서원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에서 한옥을 테마로한 관광 문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2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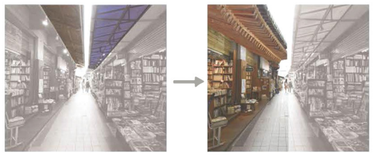
도시라 불리는 부산에 쇠퇴한 원도심의 재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에 위치한 한옥과 어울릴수 있는 테마거리를 선정하고 융합하여 지역재생과 문화관광지로써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 역할을 하고 그 기준이 되고자 전통적인 정체성을 지닌 한옥을 이용하여 역사적인 장소의 재생을 기대한다. 또한 관광지로써 역할을 할수 있도록 기존의 보수동 책방골목과 새롭게 계획된 한옥으로 그 지역의 고유의 장소성과 정체성을 새로운 분위기로 환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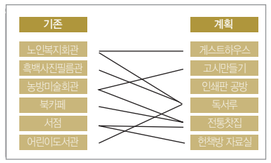
부산의 원도심인 중구에 위치한 '보수동 책방골목' 은 현재 인기있는 테마거리로 인구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 임대료는 높아져가는데 그에 반해 사람들이 책은 구매하지 않고 사진만 찍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서점들의 손해는 날로 더해간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완화하고 서점과 한옥과 연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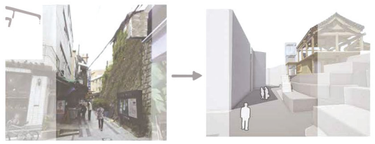
1. 대상지 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노후화된 주거시설 일부분과 유휴부지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 계획



2. 비나 바람을 피하기위해 거의 모든 서점에 항상 차양 쳐져있는데 천막 설치가 불가피한 골목에 천막 대신 처마를 설치하여 계획한 한옥과 자연스런 골목분위기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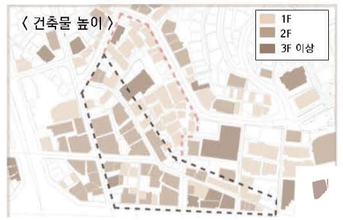
3. 책방골목내 기존의 시설과 새롭게 설정된 프로그램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 계획



4. 관광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국제시장과 이어지는 책방골목길에 진입시 높은 건물과 높은 옹벽 그리고 좁은골목으로 공간의 위요감이 느껴진다. 이를 완화시키기위해 옹벽을 깎아 SET – BACK 시켜 비교적 낮은 층고의 책방골목역사관을 배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용도가 남서쪽으로는 상업지역, 북동쪽으로는 주거지역이 혼합으로 되어있다. 주변 자원으로 임시수도기념관이 있으며 유동인구가 높은 국제시장, 대청로가 위치해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우수해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찾는 명소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역사적 의의를 갖는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분포하지만 보수동 책방골목 이용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연계는 잘 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다.

계획부문 입선

보수동 2019, 책방골목을 마주한 서원

동의대학교
윤근우
황인종

대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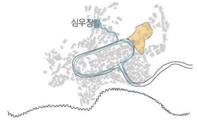
북악산 일대의 성곽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일대



한양성곽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경계면에 위치



기존의 커뮤니티 시설과 축 형성예술가들의
활동 영역과도 이어지는 루트



방문객의 동선과 주민의 동선이
원형도로를 통해 유기적 연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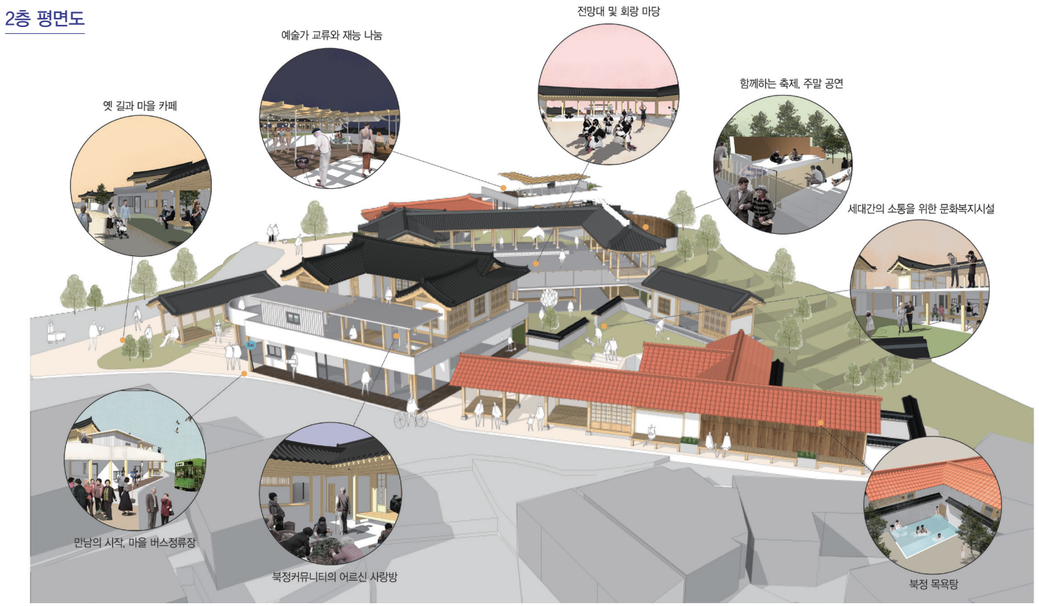


마을 골목길들과 이웃집 옥상은
주민들의 연장된 마당으로 쓰임



세대510가구로 70, 80대의 고령인구.
기초생활 수급자와 세입자 거주

2층 평면도



배치계획

재생건물 선정
마을에 흔치 않은 2층 건물인 '김포쌀가게'의
입면을 남기면서 기존경관을 최대한 보존

단층의 마을 스케일 존중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 증축으로 재생

한옥
1930년대 문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성북동은
자연과 더불어 문화가 꽃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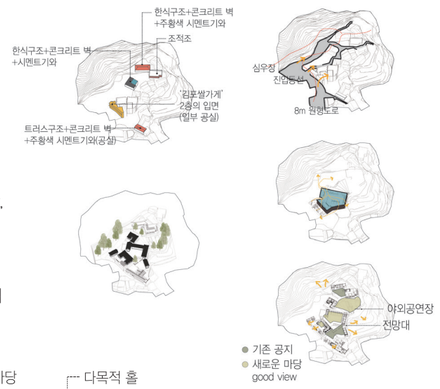
그 본거지인 근처 예인들의 도시한옥의 평면과
기능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경관과 문화을
즐기며 소통하는 맥락을 이어가는 공간을 제공

옛 길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길을
존중하며새로운 시설의 MAIN동선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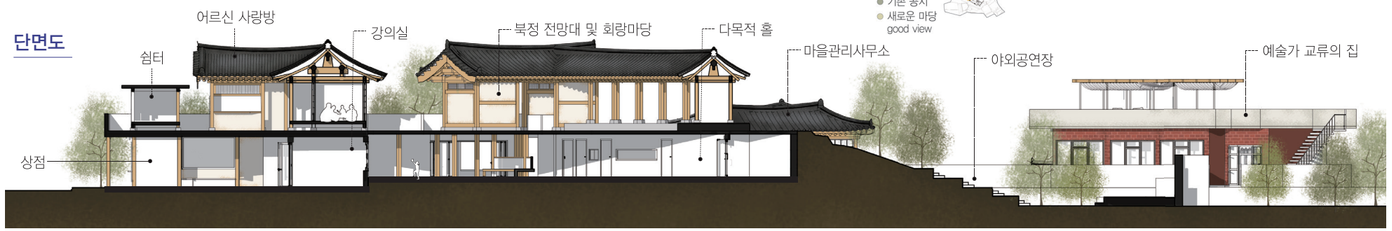
원형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진입동선과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짐

지형 이용하기
건물들이 겹겹이 쌓이며 만들어진1층이지만,
지하인 듯 한 지형을 이용
어느 공간으로도 통하는 메인 통로역할

Open space & View
공지와 채광이 열악한 고밀도 주택가를 비워
마을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제공



단면도



북정마을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CONCEPT : 북적골

북정마을의 옛 지명 '북적골'
메주 쑤는 소리로 마을은 '북적북적'하고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예전의 모습처럼 사람들이 모여 북적한 활기찬 마을로!

1. 북적마을 골목 걷기

북정마을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곳에 위치해 한양 성곽과 어울러지는 조망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골목을 누비는것이다.

옛 길을 남기고, 그 외 기존의 있는 건물과 빈 집을 사용해 마을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한다.골목을
남기며 마을의 생활을 기억하고, 거닐며 마을의 매력을 느끼는 북적이는 길!



골목 남기기



기존건물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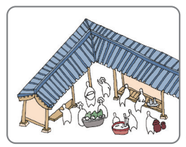


조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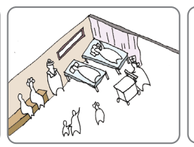
2. 모두가 모여 어울리는 사랑방과 마당

최순우옛집, 심우장, 수연산방 등 주변 도시한옥의 마루와 실 구성, 스케일, 마당의 아늑함을 모티브로 삼아
실내외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살아움직이는 사랑방과 마당으로 재해석 하였다.

일부는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보존가치를 알리고 마을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산물과 메주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사고 팔며 자생적으로 생긴 수익으로 마을을 재생시킬 것이다.



커뮤니티



복지시설



문화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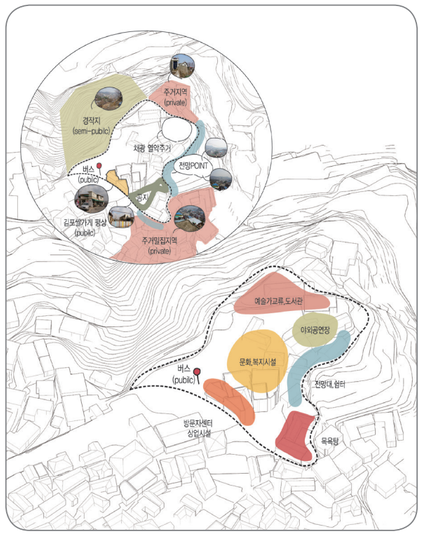


방문자센터

ZONING

SITE 주변으로는 주거공간이 다른
구역보다 밀집되어 있어 채광에 열악한
환경이다.
하지만 경사가 높은 곳에 위치해
남동쪽으로는 한양성곽, 북쪽으로는
성북동 일대가 보여 경관이 뛰어나다.

주변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한 주거지 근처로는 정적 공간
(도서관, 목욕탕)을 배치하고 공지를
이용한 마당, 마을의 특성인 옥상을
이용한 마당을 배치해 마을에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채린
김 건
김민경
이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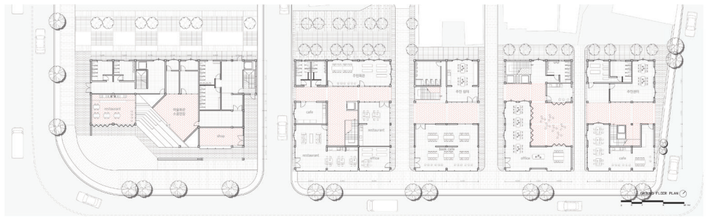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북적북정
북적골 사랑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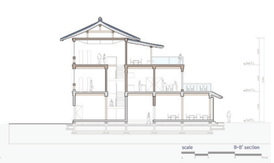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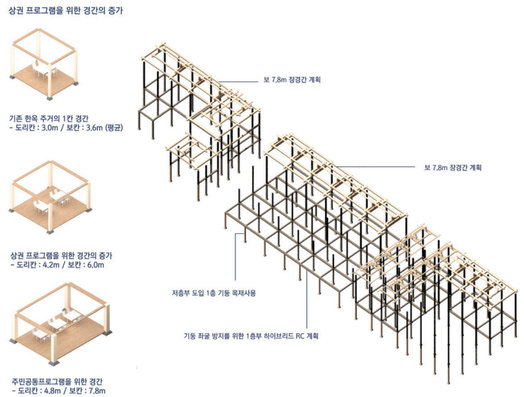








Structure process 도시 스트리트형 한옥을 위한 경간 및 구조 계획



한옥밀집지역의 자생적 재생을 위한 Common – Commercial 스트리트형 한옥 유형 제안

한옥을 통해 도심지의 마을 재생을 바라보는 현대적 입장

북정마을의 옛 지명 '북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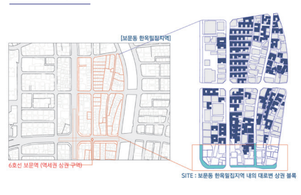
'마을'이라는 단어는 과거 한옥으로 구성된 주거지역에서 씨족 단위로 구성된 일정 영역의 범위를 일컫는다. 지방 도시부터 서울까지 이러한 과거 마을 규모와 개념은 지방도시부터 서울까지 맥락을 유지하며 주거지역을 구성해왔고, 현재 서울에는 과거 마을에서 사용되어온 작은 주거 필지가 유지된 한옥 밀집지역이 여러 곳곳 남아있다. 아래의 북촌한옥마을, 보문동 한옥지역, 선잠단지 등 한옥 밀집지역은 분명히 과거 마을의 개념과 규모, 필지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 도시 건축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라는 공동적 범위는 과거 한옥 주거만이 즐비했던 범위와 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마을 범위가 주거를 중심으로 종가집과 사원, 등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이 대표적인 범위였다면, 현대 마을의 범위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권 가로'와 '문화공간'이 주거와 적층으로 같이 공존하거나 붙어있어 과거 '마을' 이란 단어로 떠오르던 건축적 범위는 모호해졌다. 과거의 마을이 내부 지향적인 네트워크를 중요시했다면, 현재의 마을은 외부 지향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여 마을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가는 개념처럼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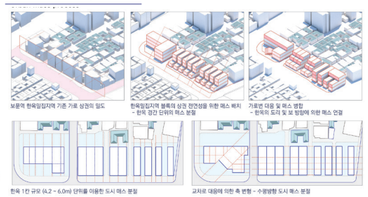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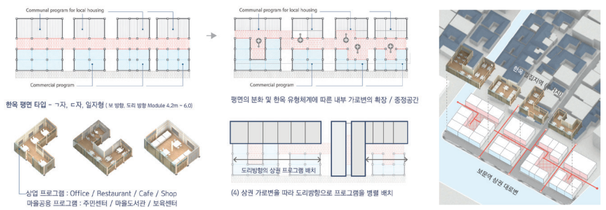
Site analysis



Urban mass process



Program 한옥 평면 유형의 배치를 활용한 스트리트형 한옥의 지반층 계획



계획부문 입선

보문동 : 보문로길 한옥밀집지역의 자생적 재생을 위한 Common–Commercial 스트리트형 한옥 유형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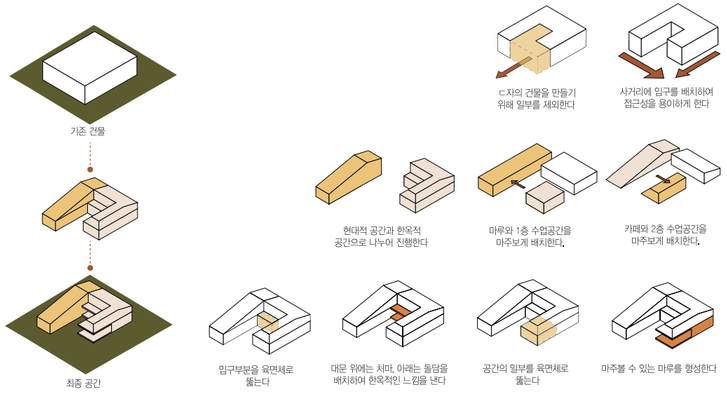
명지대학교
박범수
손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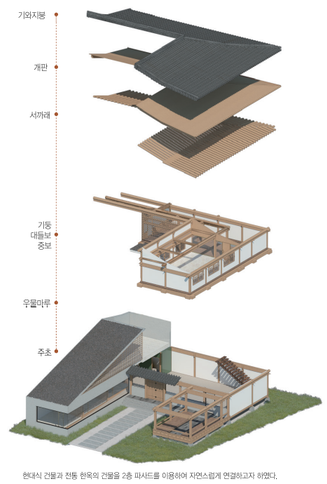


디자인 발전 과정

한옥의 미학적 개념 : 순환공간

한옥의 구성은 '순환 공간'으로써 잘 드러난다. 한옥의 실내 구성은 막히거나 일직선이 아니라 돌고 돈다. 각 방들을 연결하면 하나로 꿸 수 있는 일직선의 축이 형성되고, 이 축은 곧 바람이 통하는 길이다. 한옥의 이 물리적 순환공간을 ' 시선의 순환' 으로 재해석해 기존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간을 '봉제'를 통해 연결하듯이, 공간들이 마주보며 위치해 서로의 행위에 시선이 통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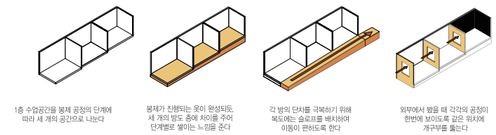




현대식 건물과 전통 한옥의 건물을 2층 마사트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연결하고자 하였다.

한옥의 미학적 개념 : 중첩과 적층

한옥의 공간구조에는 '중첩' 이 있다.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하나의 장면이 이어지면서 마치 '액자 속 액자'처럼 공간은 하나의 장면이 되어 중첩되어 보여진다.
공간 자체가 또 다른 공간 안에서 창문이라는 하나의 액자를 통해 보여지면서 그 공간들이 연결되고, 순환하며, 공간 안에 있는 행위 자체가 한폭의 그림처럼 보여진다.이러한 한옥의 중첩을 이용해 제봉과정에서 3단계의 분업이 이루어져 하나의 옷을 완성하듯이, 3단계 분업 공간들이 창을 통해 액자속 액자처럼 보여지게 하고, 이를 1층에 배치하여 특정 각도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봉제의 3단계 과정이 연속되어 보여지게 하였다.



대상지 분석

창신동 봉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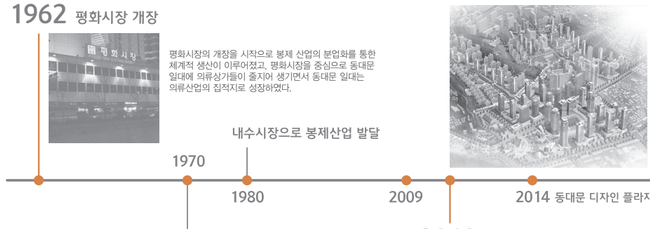
동대문 패션타운과의 근접성과 동시에 지가가 저렴했던 이유로, 종로구 창신동에는 여러 소규모 봉제공장들과 주거공간들이 자리잡아 1970년부터 지금까지 봉제마을을 형성하고 있으며, 봉제거리 내 봉제 공장들은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봉제공장 밀집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동 봉제인들의 작업 단가는 지난 20년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이 문제는 가격경쟁에만 치우쳐있는 동대문 패션산업의 생태에 그 원인이 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583-19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620 m2
- **건물면적** 528.99 m2
- **연면적** 213.45 m2
- **층수**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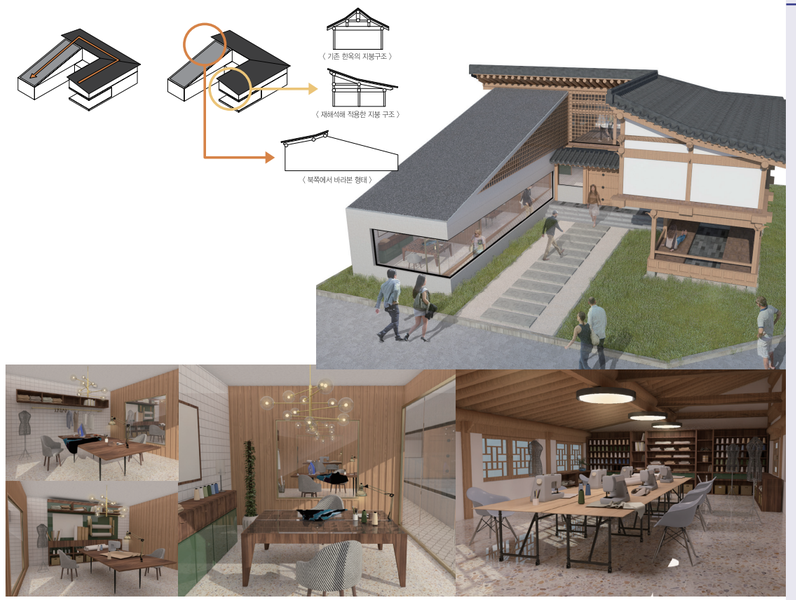
동대문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로,봉제거리가 시작되는 지점
중심사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





기와지붕 – 기존세대와 새로운 세대를 결합하다

기존의 지붕구조를 변형시켜 전통적 공간에서 현대적 공간으로의 흐름이 단순한 '연결'이 아닌, 기존의 한옥의 형태와 현대 건물의 형태를 절충하여 진정한 '결합'을 표현해 세대간 소통과 연결의 의미가 외부에서도 시각적으로 드러나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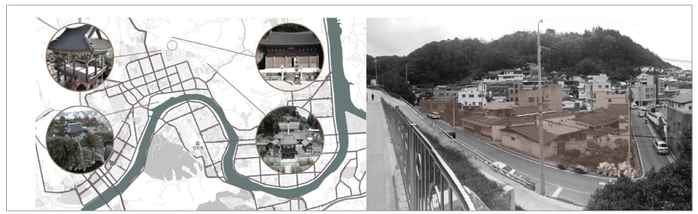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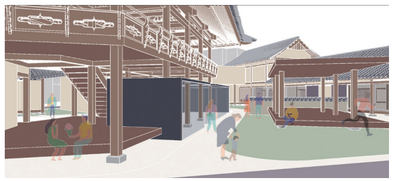
계획부문 입선

연잇다 : 창신동 봉제마을 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한옥

이화여자대학교
장예림
강민정
전지우











대상지는 과거 진주시의 명당자리라고 불리던 원도심의 배후주거지역으로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노후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더불어 미흡한 기반시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며 고령인구 및 저소득계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대상지의 남측 블록은 격자형의 도시 그리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와 접한 삼각형태의 대상지는 독특한 필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마을 주거 대부분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평평한 대상지는 마을의 입구이자 공유공간으로서 활용되어 마을 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취약계층 현황



65세이상 고령가구



공폐가/무허가 주택



슬레이트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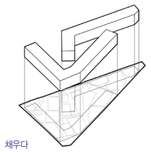


30년이상 노후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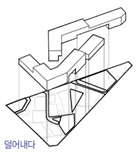


대지 내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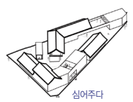




채우다
대지의 형태와 필지 패턴을 유지한 MASS 형성



덜어내다
기존 골목길과 공지는 비워져 커뮤니티 공간 형성 대상지 주변 맥락에 맞추어 높낮이 조절



심어주다
기존 필지에 한옥을 재배석하여 배치 심어진 각 요소들이 마을 재생의 기반으로 작용



SECTION scale : 1/100



CONCEPT

#1 마을 재생

과거의 사람들은 자연의 모습을 따라 집을 짓고, 길을 닦아 마을을 만들어 나갔다. 기술의 발전이 이끌어낸 도시화로 도시에는 사람들이 답답하리만큼 조밀하게 모이게 되었다. 젊은이들이 모두 시내로 빠져나간 그곳은, 오늘날 과거를 그대로 간직한 채 소외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의 거주지로 전락하고 있다. 도시는 점차 몸집을 크게 하며 도시 마을이 간직했던 과거까지 집어삼켰고, 때문에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모습만이 도시에 남아있을 뿐이다. 그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변하고 또 변하는 도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빠르게 살아가고 있다. 빠르게 변해 속부터 병들어가는 도시와 과거의 영광, 친구, 가족을 모두 떠나 보낸 뒤 남겨진 마을 중 우리는 마을 재생에 관심을 가졌고 그에 대한 건축적 제안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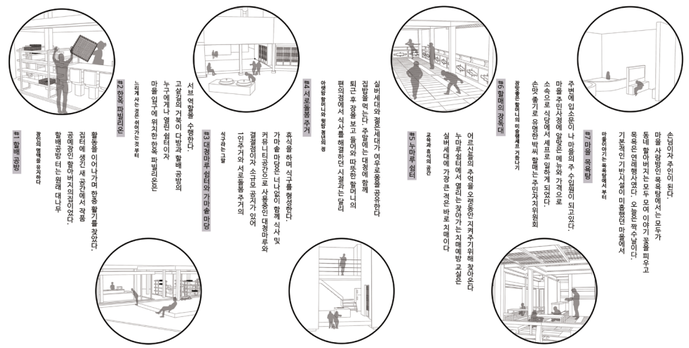
#2 SLOW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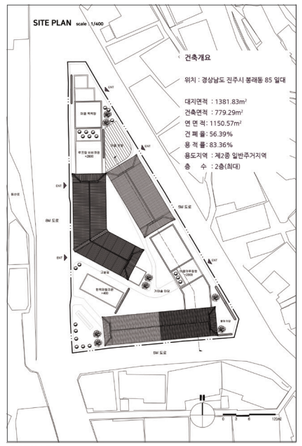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정도에 정비례한다.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 _ 밀란 쿤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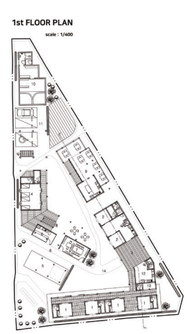
도시는 빠르게 흘러가며 이전의 것을 망각한다. 반대로 도시 마을은 느리게 흘러가며 모든 기억을 간직한다. 좁은 골목에서 마주치는 이웃들, 조그마한 텃밭을 돌보는 것, 가마솥에 만드는 저녁. 느림을 간직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잊혀져 갔던 기억들을 되살린다. 빠르게 변한 도시만큼 빠르게 지나쳐간 지난 기억들을, 사람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마을에서 이 세상에서 빠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님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SLOWNESS를 통해 도시 마을을 재건하여 모든 기억을 담아내려 한다.

#3 현대 한옥

한옥은 우리 민족의 삶의 형태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삶 그 자체이다. 마당에서는 관혼상제가 모두 이루어졌으며, 사랑채는 손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거의 한옥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의 다양한 행태를 담아내기에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목재를 사용함에 따라 물과 화재에 취약한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며, 방에서 나오자마자 보여지는 마당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는 현대인에게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전통한옥의 재료적, 구조적, 생활의 취약점을 보완하되, 한옥이 간직한 인문학적, 추상적 공간과 의미들을 최대한으로 유지한 느린 삶의 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1인주거 단위세대(노인/좌식)
2. 서로돌봄주거(노인)
3. 대청마루쉼터
4. 게스트하우스
5. 한옥 파빌리온
6. 거북이다방
7. 할배 공방
8. 고샅길
9. 할머니의 장독대
10. 마을 목욕탕
11. 마을 주차장
12. 공용주방
13. 세탁실
14. 빨래마당

1. 1인주거 단위세대(청년/입식)
2. 서로돌봄주거(청년)
3. 이음마루경원
4. 게스트하우스
5. 루프탑 바비큐장
6. 누마루 쉼터 (마을학교)

SCENARIO

마을 재생 시나리오 : 낙후된 동네에 노곳한 비봉마을'이라는 슬로건과 현대한옥을 활용해 마을을 재건한다.

계획부문 입선

느리게
산다는 것

경상대학교
이준혁
서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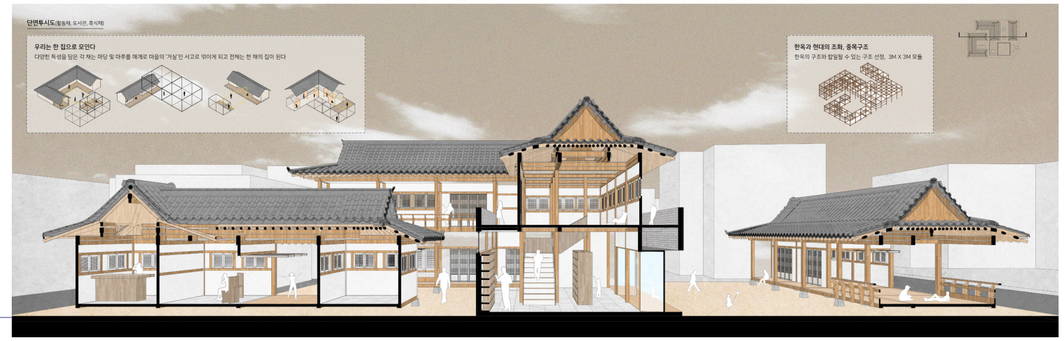
한옥 마을 속 한채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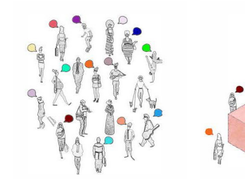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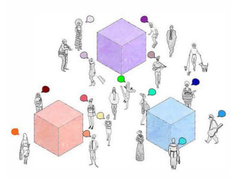








다분화된 사회 속 다양한 사람들



비슷한 색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프롤로그

마을 속 한채의 집

'마을'이란 정이 깃든 삶터이자 주민들의 공동체.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대다수의 주거지는 그저 도시 조직의 부품으로 기능을 한다. 공동체적 교류는 일어나지 않으며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개발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소통과는 멀어지고 개인주의가 더 편한 이 모습이 도시마을 쇠퇴의 원인이라면 손쉬하게 시도해온 개발은 미뤄두고 우선, 주민들의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도시마을 재생하려한다.

대지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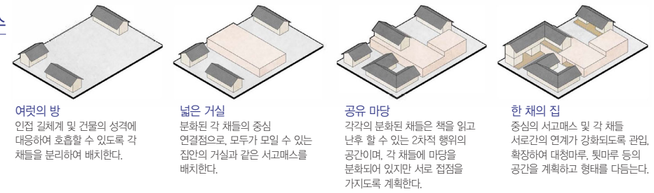
가능성
대구 북구의 주거지 일대는 초, 중, 고, 대학교 및 시청 등 거점시설이 자리해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나 계층간 소통은 단절된 상황이다.

문제점
사이트는 기존, 사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립이라는 점과 폐쇄적인 대지 특성상 마을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이를 재생한다.

확장
새로운 마을소통의 거점을 위해 대지를 확장하고 인접 길체계 및 성격이 다른 기존 건물들에 의하여 사이트 내에 서로 다른 분위기가 형성된다.

방향성
형성된 각 분위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으로 주변과 반응하며 각 공간들이 서로 교집합을 가지며 교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디자인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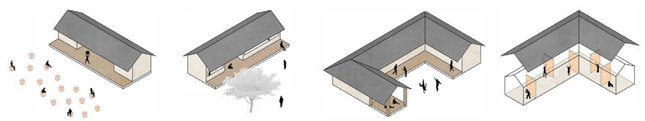
여럿의 방
인접 길체계 및 건물의 성격에 대응하여 호흡할 수 있도록 각 채들을 분리하여 배치한다.

넓은 거실
분화된 각 채들의 중심 연결점으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집안의 거실과 같은 서고매스를 배치한다.

공유 마당
각각의 분화된 채들은 책을 읽고 난후 할 수 있는 2차적 행위의 공간이며, 각 채들에 마당을 분화되어 있지만 서로 접점을 가지도록 계획한다.

한 채의 집
중심의 서고매스 및 각 채들 서로간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관입, 확장하여 대청마루, 툇마루 등의 공간을 계획하고 형태를 다듬는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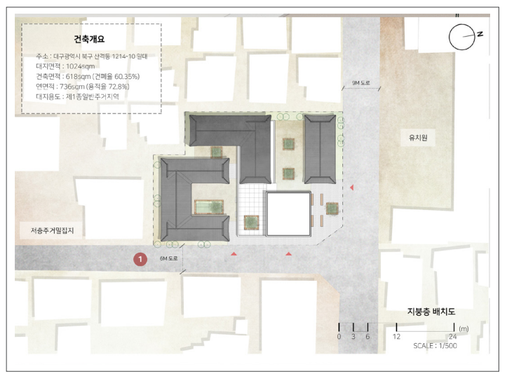


휴식채
넓은 마당과 대청마루에서 조금은 더 왁자지껄한 느낌의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콘서트,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독서채
중심 서고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조용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거나 혹은, 툇마루와 마당공간에서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활동채
가구가 필요한 독서 후 2차적 행위가 집합된 공간으로 간단한 공예, 쿠킹, 미술 활동 등을 하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변채
활동채에서 모든 독서 후 활동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계획부문 입선

한옥, 마을 속 한 채의 집

경북대학교
신민영
장지철
하지훈

컨셉 및 디자인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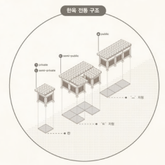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공용시설, 쓰레기 처리공간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소통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좋지 않은 미관과 치안의 문제로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



private에서 public으로 갈수록 기본적 생활공간의 보장, 개인의 소통 공간 제공, 집단적 소통공간 제공, 자생 및 외부 교류 공간으로 공간이 확장된다.



4개의 type들이 길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낮에는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휴식공간 그리고 외부 교류의 거점이 되고 밤에는 한옥으로부터 퍼져나오는 불빛을 통해 치안유지의 거점이 된다.



칸과 채의 개념 그리고 여러 구조로 변형이 가능한 한옥의 전통 구조 특징을 살려 private과 semi-private은 칸의 형태, semi-public은 ㄷ자 구조, public은 ㅡ자 구조의 형태를 취한다.



4가지의 type의 공간들과 밝은 밤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겪는 기본생활의 불편과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여 쪽방촌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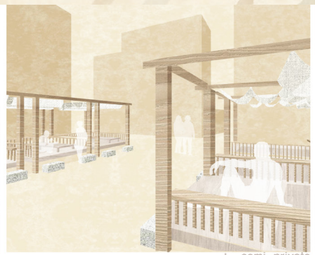


쪽방로는 현재 거점을 통한 도시재생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추구한다. 이는 쪽방촌 중앙에 위치한 거점들이 길을 따라 점차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마을 전체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계획되었다.

쪽방로 : 길을 거점으로 한 쪽방촌 재생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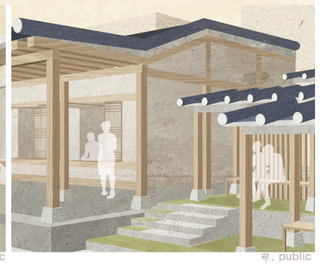
ㄱ. private



ㄴ. semi-private



ㄷ. semi-public



ㄹ. public



4가지 type의 공간



모티브 ❶ 모정

과거 서민들이 사용하였던 정자 역할의 공유재인 모정의 형에서 모티브를 얻어 가로세로 3m 형태의 칸으로 private 공간을 디자인했다.





모티브 ❷ 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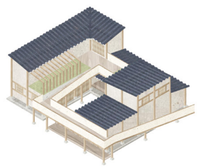
지금은 마을에서 보기 어려워진 평상을 다시 활용하여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개인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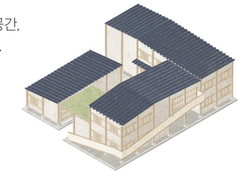




모티브 ❸ 주막

과거 오가는 사람들이 머물고 음식과 술을 먹었던 주막에서 모티브를 얻어 semi public 공간을 디자인하였다. ㄷ자 형으로 구성된 건물은 작은 안마당을 갖는다. 이곳은 크게 쪽방주민회관과 동자동사랑방으로 운영되고 공용주방과 집단적 소통 및 휴식공간, 오피스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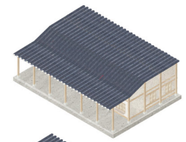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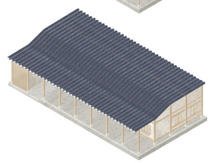


모티브 ● 장터

자생 및 외부와 교류를 하는 공간으로 장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주민들이 직접 신문을 출판하는 쪽방신문의 출판소가 위치해있고 작은 카페와 쪽방 전시장이 위치하여서 쪽방촌의 인식개선의 역할을 한다. 과거 장터의 분위기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개방적인 형태인 ㅡ자형으로 구성하여 외부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부문 입선

쪽방로[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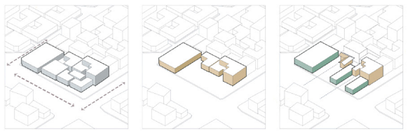
숙명여자대학교
김수림
최우지
황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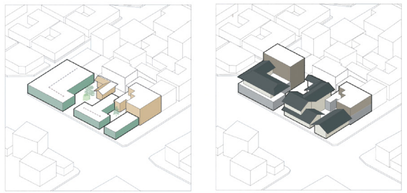
화점놓기

거점 한옥을 통한 도시마을의 재생

거점으로서의 한옥은 도시상황에에서 마을주민들이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존재하며 적용된 부분적인 요소, 필지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자생적인 도시마을 재생의 출발점이자 장소성과 정체성을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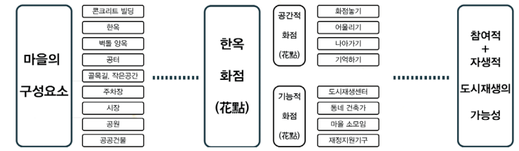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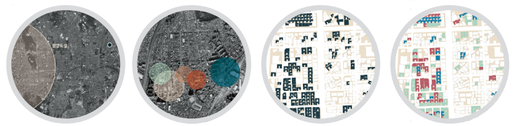
① 가로에 대응하기 ② 고쳐 쓰기 ③ 구분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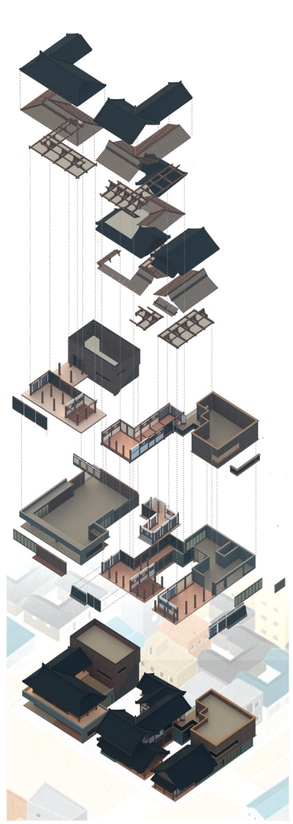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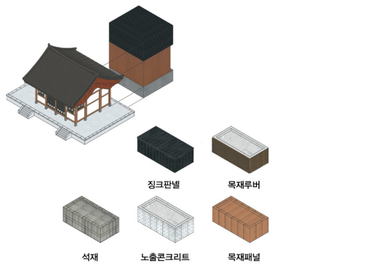
④ 마당 만들기 ⑤ 어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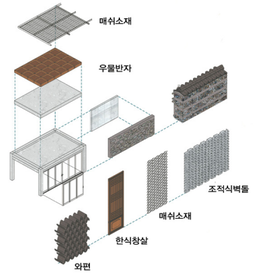




어울리기

건축물의 외관계획을 통한 조화로운 경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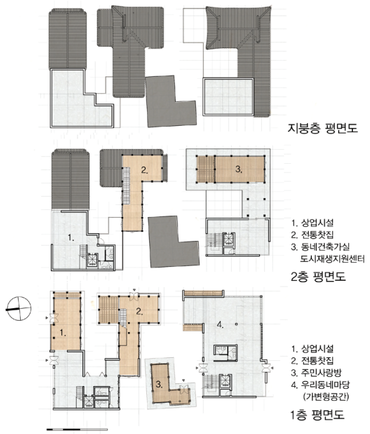
한옥의 기단, 몸체, 지붕으로 분리된 입면의 구성방식을 활용한 통일감을 조성, 적용할 수 있는 재질의 재료를 구분한다. 석재(화강석, 현무암 등), 목재, 점토(전돌, 벽도, 와편, 회벽), 금속(징크), 노출콘크리트 등을 활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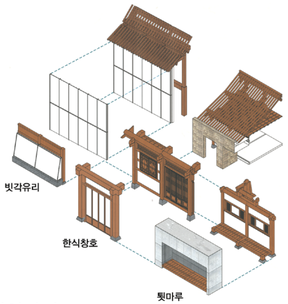


기억하기

현대의 콘크리트 건물의 전통적 경관 활용 방법

한옥과 관련된 패턴 및 소재를 활용한 입면 활용을 통해 통일성 있는 경관을 형성, 매쉬소재나 틈을 만드는 와편, 조적식 벽돌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건물임에도 한옥의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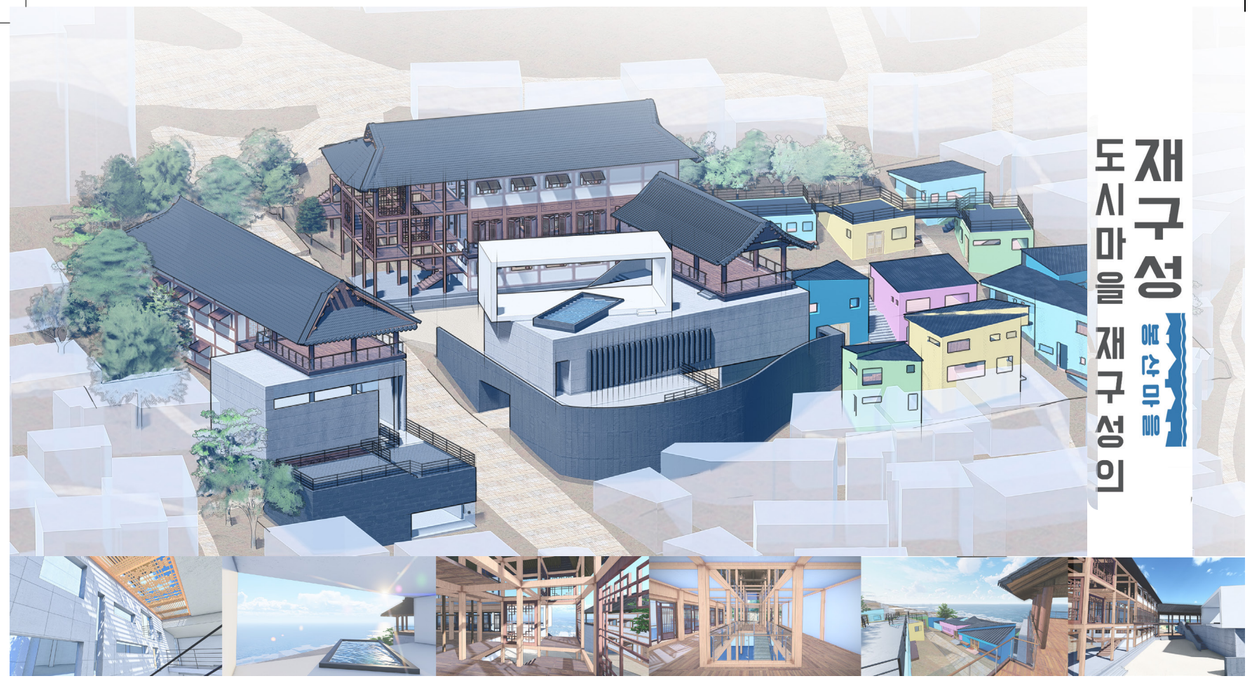
전통적 한옥 경관에 대한 다양한 모습 제안

무분별하게 확장 된 부분의 철거, 처마 밑 공간 확장을 전통적 요소로 하여 가로에 대응하는 한옥의 전통적 경관을 조성한다. 기단, 초석 등은 은유적 표현의 가능성을 가지며 도시의 밀도를 고려한 2층 한옥의 확장 된 입면도 고려된다.

계획부문 입선

한옥화 • 점

명지대학교
조진우
권동훈
김민주



재구성의 봉산마을 도시마을 재구성의

빈집 '많은' 봉산마을

조선산업 침체로 인한 조선소 축소
+
영도 1구역 뉴타운 지정 해제

30년 이상 된 집 88.1%
총 400여채의 집 중 폐가 41채, 공가 30채,
나대지 16채, 총 87채의 빈집



〈영도 1재정비 촉진지구〉

'17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NO VACANCY (만장)	빈틈없이 모두가 살고 있는 동네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게스트하우스 팝하우스 등을 운영
베리베리	베리(Very) 매우, 아주라는 뜻과 동시에 블루베리를 뜻함 현재 나대지를 이웃분석 마을단위로 블루베리를 재배
굿 (GOOD)	좋은, 즐거운, 기쁜, 다행스러운 뜻을 가진 긍정적 의미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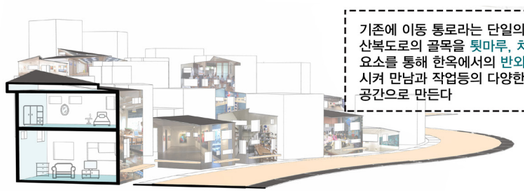
+ 골목정원축제, 꽃봉산영화제, 플리마켓 등의 관광, 체험 행사를 주기적으로 시행

봉산마을 현황



공 가
폐 가
나대지
••• 골목정원 축제 꽃봉산 영화제 플리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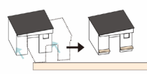
문제점 해결 방안



기존에 이동 통로라는 단일의 기능을 가졌던 산복도로의 골목을 툇마루, 처마라는 한옥적 요소를 통해 한옥에서의 반외부공간화를 시켜 만남과 작업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 공간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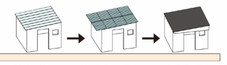
골목길의 툇마루

좁은 골목에 건물을 셋백시켜
툇마루 쉼터 제공



산복도로 지붕의 변화

도시조직인 골목과 벽체를 유지하고 지붕을 교체해
왔던 것이 산복도로의 정체성



산복도로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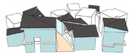
산복도로의 시각적 맥락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붕의 각을 조절해 올려다 볼때 산복도로 도시마을
형태를 가짐



정체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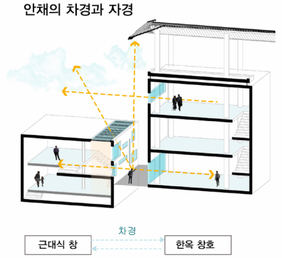
한옥 마을

내려다볼때는 굴곡진 지붕이 각자방향성을
띄며 군집되어 한옥마을의 형상을 함



장소성 부여

안채의 차경과 자경



대지내 골목길을 살리면서 산복도로의 근대적 창과 한옥의 창호로 차경과 자경을 보여주고 현대식 커 공간으로 아카이브센터에서의 공간감과 유리창에 비치는 한옥 문양 그림자로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우물반자에서의 차경과 자경



규격화된 우물반자가 내부에서 외부로 이어지고 내부 보이드 공간으로 우물반지의 프레임속으로 자경과 차경이 보여진다

"도시마을 재구성"

좁고 더러운 기능의 한계에 부딪힌 골목을 개선시키다
해결방안
한옥처마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좁은 골목길을 넓혀줌
골목화단 구성과 바닥모장 툇마루 계획

주민들에게 부족한 모임장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다
해결방안
거점시설 내 마을 회관 확보 유휴공간 활용 기반시설 확충

빈집을 줄이고 청년들을 끌어들이다
해결방안
청년 문화 공간 마련 빈집활용



화점놓기

거점 한옥을 통한 도시마을의 재생

산복도로는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6 · 25전쟁, 경제개발기를 거쳐 형성된 부산의 근현대사적 유산이다. 그러나 현재의 산복도로는 난개발과 압축성장으로 인해 부산의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되면 송두리째 아파트 단지가 되어 버리거나, 최근에는 마을 재생이랍시고 대부분 같은 형식의 벽화마을로 탈바꿈 되었다가 되려 방치되고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들에 의해 산복도로의 도시마을들은 그 고유한 도시조직들이 파괴되고 그 정체성 마저 잃어버리고 있다.

봉산마을은 부산의 원도심인 영도의 산복도로 도시마을로 조선산업의 침체와 뉴타운지정 해제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와 더불어 급증하는 빈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을이다.

"이에 우리는 산복도로의 도시조직과 정체성
(역사적, 시각적)과 봉산마을의 빈집을 한옥적 요소들과 적절히 융합 도시마을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장소성을 부여하며 마을의 거점으로써 도시조직을 따라 뻗어나갈 수있게 설계하여 산복도로와 산동네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안채 : 봉산마을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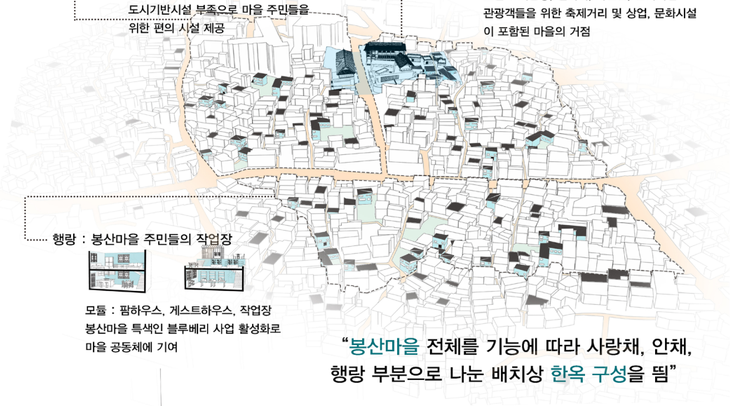


모듈 : 운동시설, 쉼터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 제공

사랑채 : 봉산마을과 외부인과의 소통



모듈 : 체험장, 갤러리, 사진관, 판매시설
관광객들을 위한 축제거리 및 상업, 문화시설
이 포함된 마을의 거점



행랑 : 봉산마을 주민들의 작업장

모듈 : 팜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작업장
봉산마을 특색인 블루베리 사업 활성화로
마을 공동체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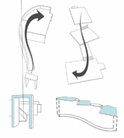
"봉산마을 전체를 기능에 따라 사랑채, 안채, 행랑 부분으로 나눈 배치상 한옥 구성을 띔"

차경과 자경



한옥 구성의 동선

솟을 대문 골목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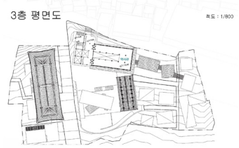


借景
自景

네모난 기하학형태의 매스에
수공간을 둔 현대식 누마루로

예술촌 골목에서 현대식 램프를 통해
메인 거점으로 들어가는 솟을대문 역할을
한다. 골목길을 들어올려 옥상의 현대식
골목을 형성하고 전망대 역할을 한다.

3층 평면도 축도 : 1/800



2층 평면도 축도 : 1/800



1층 평면도 축도 : 1/800



지하1층 평면도 축도 : 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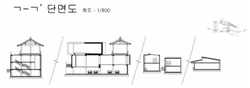
지하2층 평면도 축도 : 1/800



지하3층 평면도 축도 : 1/800



ㄱ-ㄱ' 단면도 축도 : 1/800



입면도 축도 : 1/800



계획부문 입선

도시마을 재구성의 재구성

동서대학교
류재일
김병찬
김윤정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품집

발 행 처 | 국토교통부
전　　화 | 044.201.3783
팩　　스 | 044.201.5574

인 쇄 일 | 2019년 12월 16일
발 행 일 | 2019년 12월 20일

기　　획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044.417.9600)
편집·인쇄 | (주)삼일기획

2019©국토교통부

이 책은 수상자들의 동의하에 국토교통부가 편집한 출판물로 각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